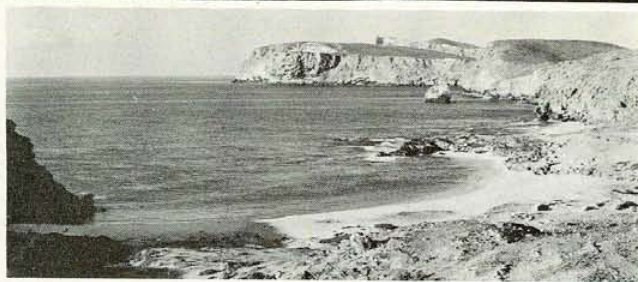


성도의 빛 7
1977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벗 7
1977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멘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쿱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고문

고든 비 힝클리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매리온 디 행스
제임스 에이 칼리모어
로버트 디 헤일즈

차 례

아직도 개척자는 필요합니다 ---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	1
리하이의 발자취를 따라 -----	린 엠과 호프 에이 힐튼 ---	2
리하이의 여행로를 따라 -----	제랄드 실버 -----	15
주님의 도구 -----	폴 엔리코 고메즈 -----	17
이 길 밖에 없지 않아요! -----	조이스 비 베일리 -----	18
앰블레크 -----	메이블 존스 개봇 -----	23
색칠하기 -----		24
몰몬 일지 -----		25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	로버트 엘 심슨 장로 -----	27
사랑이란 이해하고 돕는 것 ---	데오 이 맥킨 -----	32
반원을 이해함 -----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	35
지역 지도자 메시지 -----	김 백주 -----	37
교회 및 지역 소식 -----		38
표지 설명 -----		표3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 1977년 7월 1일

매월 1일 발행

제13권 제7호

등권 144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톨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수

1977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개척자는 필요합니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이 달은 130년 전, 물몬의 개척자들이 일리노이주의 아름다운 나부시와 안락한 가정을 뒤로 하고,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2,300 킬로미터의 황량한 광야를 횡단했던 역사적인 여정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1847년 7월, 그들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에 정착하여, 현재 그리스도 교회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기념일을 정해서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원리와 확신을 되새기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필요하면 숭고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곧잘 "과거를 존중하는 올바른 길이 과거를 토대로 현실을 향



상시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보다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모든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과 기도할 것을 가르치며, 그들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로서 보다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1940년에 미화 프로그램을 소개하시면서 스티븐 엘리차즈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위대하고 현명하신 지도자, 브리감 영이 오늘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계획하여 그토록 열심히 용기를 가지고 건설해 보고자 했던 도시와 마을, 한 여름에 만개한 아름다운 꽃, 농장과 들에 무르익은 곡식, 소떼와 양 떼들로 덮힌 산기슭, 공장, 산업 지역, 공공 건물, 학교, 교회 등 고도의 성장을 보여 주는 건물들,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는 종교와 문화 등을 보는 그의 영혼은 얼마나 기쁨에 넘치겠습니까? 더우기 많은 나무와, 넓은 잔디밭과 향기로운 꽃밭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곳에 수많은 가정 집이 보급자리를 펴고 있으며, 그 안에 정직하고, 근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당시 황무지 계곡이던 곳이 그를 이은 세대들의 이상과 산업의 발달로 크게 변모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감사의 잔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지와 용기와 값진 유산을 남겨 준 이내심과 헌신에 찬 조상들을 위하여 보다 가치있는 것을 돌려 드릴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존경심을 아름답고 표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생활의 아름다움과 주변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회 보고, 1940년 4월 7일, 129-30페이지)

아직도 개척자는 필요합니다. 개척자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개척자는 지도자요, 발견이나 발명 분야에서 일인자입니다. 그를 이어 정착자들과 개발자들이 개척자의 발견 사항을 탐험하고 조사하게 됩니다. 개척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택하고자 계획하는 길에 대하여 알려진 바에 온 정성을 기울입니다. 개척하는 데 필요한 자질 중에 몇 가지는 관심, 예지, 상상력 그리고 결단력입니다. 개척자는 탐구해야 하고, 계획하여야 하며, 경험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앞에서 길을 닦아 주신 분들로부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복음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험이 필요없으며, 오직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인 영생을 성취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길을 밝히 보여 주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와 같고, 오늘도 같으며, 영원히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펴시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리하이의 발자취를 따라

린 엠과 호프 에이 힐튼/글
재랄드 더블류 실버/사진

제 1부: 준비

편집자 주:

146년 동안 몰몬경 독자들은,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남쪽 홍해 변방 광야로 여행하다가 때로는 홍해 연안에 이르기도 하며, 이 여행을 통하여 많은 고생을 당하기도 하면서 결국 바운티풀이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된 리하이 일행의 여행을 마음속으로 그려 보았다. 독자들은 리하이 일행이 멈추었던 곳, 배를 만들었던 곳, 리하이에게 약속된 땅, 곧 서반구에 그들이 도착한 곳, 등과 같은 역사적인 장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여 왔다.

이러한 사건들은 수천년 전에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야산, 계곡, 성읍, 그리고 신약의 복음이 전파된 로마 등지의 사진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보다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교회 잡지의 편집자들은 린 엠 힐튼과 그의 부인 호프 부부에게 리하이의 여행 지역을 조사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과거 수년간 힐튼씨 가족은 여행사 경영주로, 그리고 브리검 영 대학교 성인 교육 여행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을 십여 차례 여행한 바 있다. 그들은 중동을 사랑하며, 그곳에 많은 친구가 있고 그곳의 도시를 종종 방문하였다. 그들은 그곳의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였으나 중동학에 대한 학위를 얻기 위하여 연구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몰몬경을 사랑하고 몰몬경이 진실하다는 강한 간증을 갖고 있다. 우리는 교회 일간 신문 데저렛 뉴스의 사진 기자인 제랄드 실버 형제에게 힐튼씨 부부와 함께 동행하면서 모험의 장면을 사진에 담아 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리하이의 여행지에 대한 힐튼씨 부부와 실버 형제의 조사 지역은 단지 가능 지역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의 조사는 우리에게 몰몬경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보여 주고 아람 문화가 몰몬경에 기여한 바를 소개하여 주었다.

우 리에게 맡겨진 방대한 과제를 생각해 보라! 우리는 2,500여 년 동안 버려진 길을 따라 가야만 했다. 그 길의 절반은 오늘날 오만,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등으로 분할되어 전화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리하이 일행이 여행한 길에 대한 실마리란 오로지 니파이가 수년 동안의 여행에 대하여 기록한 열 여덟 장이 그 모두였다. 게다가 이 기록의 목적은 여행에 대한 지리적인 사실 기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친과 그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시현을 기록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임무를 지명받았으며, 우리는 몰몬경이 진실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니파이의 실제 기록을 전제로 하여 여행을 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몰몬은 니파이의 기록을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몰몬경에 포함시켰으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요셉 스미스는 이를 문자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하였다. 우리가 발표할 결론과 전제는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리하이의 행적을 조사한 우리의 흥미로운 모험은 몰몬경에 언급되어 있는 실제적인 장소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의 결과로 얻게된 것이었다.

우리가 조사한 것 중에서 고무적인 사항의 하나는 아라비아 반도가 초시간적인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곳은 또한 지리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불변하

는 지역이다. 이천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백년 전이나 천년 전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물과 아라비아의 초시간성과는 깊은 관계가 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 이것은 아라비아인의 생활에서는 불가피한 사실이다. 아라비아 반도의 거대한 오아시스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사막에서 도시가 번창할 수 없으며, 거대한 공동 우물과 샘으로부터 도시가 뿔어갈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다. 물이 있는 지역은 리하이와 여행한 지역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주님은 리하이가 여행한 시기, 방법, 그리고 길을 알고 계셨다. 물론경 독자도 때는 알고 있다. 우리는 여행 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모으기로 하겠다.

우리는 물문경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우리는 물문경을 읽으면서 여행에 관하여 물문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고 니파이일서부터 한 구절씩 읽어 가며 우리의 마음에 떠올랐던 몇 가지 의문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먼저 니파이일서 1장에서 우리는 리하이가 “평생을 예루살렘에서 사셨”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4절)

리하이는 “나아갔”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5, 7절) (그렇다면 그가 예루살렘을 나갔다가 다시 성내로 돌아왔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2장에서 주님은 리하이에게 “광야로 떠나가라”고 명하셨다. (2절) (리하이에게 있어서 광야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의미하는가? 숲을 의미하는가? 사막을 의미하는가?) 후에 그들은 “집과 상속의 땅과 금은 보화를 남겨 두고” 떠났다. (4절) (왜 그는 금은을 갖고 가고자 하지 않았는가?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금은이란 금은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인가?) 리하이는 “다만 가족을 이끌고 양식과 천막만을 가지고 떠나갔느니라.” (4절) (어떤 종류의 양식을 갖고 갔겠는가? 천막을 가지고 어떻게 여행을 했겠는가? 이러한 생활 방식은 그 당시의 아라비아 유목민의 유목 생활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방향에 대한 실마리가 5절에 나와 있다. “부친은 홍해 변방에 이르러...홍해에서 더 가까운 변방의 광야로 여행하여 갔느니라.” (참으로 흥미있는 부분이다. “변방”과 “더 가까운 변방”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적어도 홍해라는 분명한 경계표가 있다. 홍해에 “가까이” 가는 길이 있고, 또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따로 있는가?) 다음 절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다. “사흘 동안을 여행하고 나서 부친은 어느 강변 골짜기에 천막을” 쳤다. (6절) (주: 홍해에 이르른 후부터 사흘을 말하는 것이지 예루살렘을 떠난 후 사흘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강과 이 계곡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다른 절에는 좀더 구체적인 실마리가 나와 있다. “이 강물은 홍해로 흘러들어가며 강 어구에서 가까운 변방에 계곡이 있다” (8절) (리하이의 천막이 홍해로부터 내륙 지방에 칠 수 있었을까?) 이 계곡은 레뮤엘이라 하였고, 강은 레이맨이라 하였다. 이것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실마리를 더 얻을 수 있다. “이 강물은 홍해로¹ 흘러들어가며” (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리하이는 레이맨에게 “이 강물을 닦아 쉬임없이 달음질 쳐 의의 샘에 이를지어다!” 라고 말하였다. (9절) (아라비아에 쉬임 없이 흐르는 강이 있는가?) 리하이는 레뮤엘이 “이 골짜기를 닦아 굳세고 강건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어다!” 라고 하였다. (10절)

그리고 니파이는 “부친은 천막에 기거하고 계셨”다고 설명하였다. (15절) (장기간 기거하셨다는 의미인가?)

예루살렘을 왕복하는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경전에 기록된 어휘의 변화가 재미있다. 예를 들면,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이 뚝쇠판을 가지러 갔을 때, 그들은 천막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²” 갔다. (3:9) (왜 그들은 천막을 갖고 갔는가? 예루살렘은 사방에서 “올라가”야만 하는가?) 레이밴의 집에서 문제를 당하고는 “상속의 땅으로 내려가” 그들이 남겨 두고 온 금은 보화를 가져 오기로 결정하였다. (22절)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레이밴의 집으로 “돌아 갔³”다. (23절, 영문 4:4, 34, 35; 5:1 참조) (이것은 매우 흥미있는 부분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어느 쪽으로 해서 상속의 땅으로 다시 “내려” 갔겠는가? 광야와 상속의 땅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내려” 가게 되었는가? 홍해 변방에 있는 리하이의 천막으로부터 그들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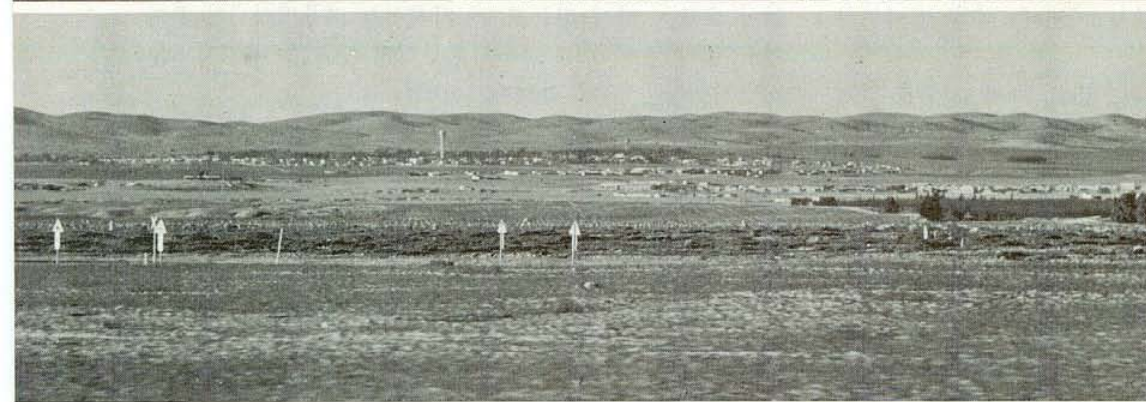
니파이가 뚝쇠판을 갖고 돌아 왔을 때, 리하이는 “주님께 제물과 번제를” 드렸다. (5:9) (제물용 짐승은 어디에서 났는가? 그들이 짐승을 갖고 왔는가? 아니면 근처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짐승을 샀는가?) 7장에서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은 이스마엘의 가족을 데리러 돌아 갔을 때에도 역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up)갔고 광야로 “내려”(down)왔다는 말이 영문에 나오고 있다. (2-5절) (뚝쇠판을 갖고 온 때로부터 두번째 여행에서 돌아 온 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겠는가?)

16장에서 그들은 리아호나를 받아 “우리가 광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데 모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도 남은 대로 모두 모았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갖고 온 식량 이외에 다른 양식이 있었는가?) “광야로 가져갈 온갖 씨앗의 종자를 한데 모았느니라.” (11절) (어디에서 종자를 얻었는가? 추수하였는가? 샀는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갖고 왔는가?)

다음 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천막을 들고 레이맨 강을 건너 광야로 길을 떠났느니라.” (12절) (그렇다면 리하이의 천막이 강의 서편에 있었다는 말인가? 그들은 강 동쪽의 남단으로 여행하고 있었는



리하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향 길을 택하여 여행하였다면 헤브론 근처 탁코미나의 비옥한 계곡과 울창한 산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을 것이다.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수백 년 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름을 지은 브엘세바, 곧 “언약의 우물” 리하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향길을 택하여 여행하였다면 이 오아시스 마을을 통하여 여행하였을 것이다.

가?) 16장 13절에는, 그들은 나홀 동안 “남남동으로” 여행하여 천막을 쳤다. 그들은 그곳을 세이저라고 이름지었다. (나홀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

“우리 일행은 다시 [그들은 그곳에서 적어도 잠시동안 머물렀음에 틀림이 없다] 같은 방향으로 [이것은 남남동일 것이다] 홍해에 가까운 변방에 자리잡은 광야의 가장 비옥한 땅을 따라 길을 갔느니라.” (14절) (가장 비옥한 땅은 어디일까?)

이번에는 얼마나 긴 여행을 했는가? 니파이는 단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활과 화살과 투석기로, 식량으로 할 짐승을 잡아가며 여러 날 동안 여행하였느니라. [쉬어가며 여행을 하였다는 말인가, 아니면 쉬지 않고 여행을 하였다는 말인가?】” (15절) “여러 날 여행하고 나서 우리들은 휴식을 취하며” (17절)

그러다가 그들은 재난을 만났다. 18절에서, “좋은 강철로 만들어진” 니파이의 활이 부러졌으며, 형들의 활은 “탄력이 없어진지라”(21절) 그들은 몹시 화를 내었다.(왜 강철로 만들어진 활이 부러졌으며, 형들의 활에 탄력이 없어졌는가?)

니파이가 나무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식량할 짐승을 사냥한 다음 (그들은 사막에서 어떠한 식품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어떠한 종류의 짐승을 사냥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처음 여행을 시작했을 때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그들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날을 여행하다가” 니파이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밝혔다. “잠시 머무르고자 다시 천막을 쳤느니라 [반영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33절) (어디에서 이렇게 천막을 쳤겠는가? “잠시”란 얼마 정도의 시간을

말하겠는가? 영문에 의하면 “the” space of “a” time 이라고 되어 있는 데, 이와 같이 관사를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죽으매, 네이훤이라 하는 곳에 묻어 장사”하였다. (34절) (누가 네이훤이라 불렀는가? 왜 그들은 그를 그곳에 장사하였는가? 그가 죽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병석에 누웠겠으며, 장례식은 며칠 만에 이루어졌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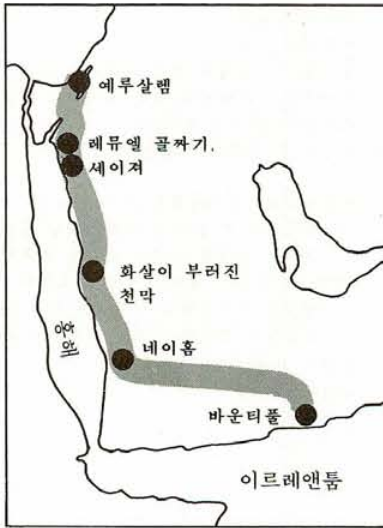
17장에서 그들의 여행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부터는 거의 동쪽으로만” 나아갔다. (여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동쪽으로만 갔겠는가?) “광야를⁴ 지나면서 많은 고난을 이겨 나갔으며,” (1절) (여행하는 것과 헤쳐 지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가? “많은 고난”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2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날고기”를 먹고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많은 고난”인가? 왜 그들은 고기를 익혀 먹지 않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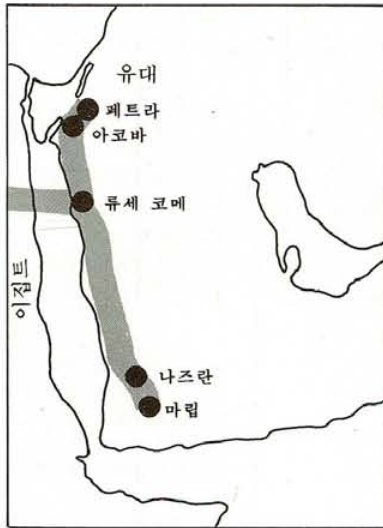
광야에서 8년 동안 머물러 산 후에 “우리는 과일과 들꽃이 풍성하여 바운티풀이라 이름 붙인 곳에 이르렀나니,” (꽃이 있다는 것은 꽃과 잎과파와 같은 꽃 피는 목초가 자라는 곳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그곳에서 바다를 보았고 이를 이르레엔툼이라 하였으니 [홍해와는 다른 곳임에 틀림이 없다] 번역한 즉 물이 많다는 뜻이라.”(5절)(이 바다가 홍해보다 크겠는가?) 그들은 “해변에” 천막을 쳤다. (6절) (그렇다면 좋은 해안이 펼쳐 있거나 적어도 천막을 치고 짐승을 잡을 만한 초원 비슷한 곳이 펼쳐져 있는 곳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7절에서 보면, 니파이가 “산으로” 갔다. (산은 하나만 있었는가? 근처에 있었을

그림 1 리하이의 여행로였을 가능성이 있는 길과 관계있는 고대의 두 가지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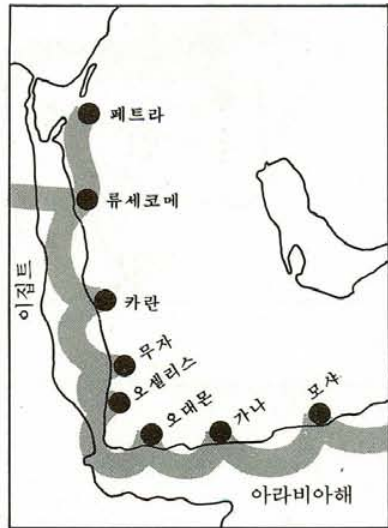
주전 600년
리하이의 여행길(추정)



주전 24년
스트라보
리하이가 태하여 갔을 여행길과 매우 비슷한 길로 원정간 10,000명의 로마 병정들의 불운에 대한 보고



주후 57년
페리플러스
이집트에서 인디아까지 항해한 회람인의 문서



1. 유대부터 페트라까지는 "사막"이다. (스트라보 16 : 4; 21)
2. 상품이 류세 코메로부터 페트라까지 국경을 넘어 교역되었다. (16 : 4; 24)
3.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살고 있었다. (16 : 4; 21)
4. 페트라로부터 류세 코메까지 이르는 대상의 길은 군대를 다스린다는 보고(16 : 4 : 23)
5. 아라비아 황무지에는 물이 필요하며, 타는 듯한 열기가 있다. (16 : 3 : 3)
6. 아랍인은 낙타 메를 지킨다. (16 : 3 : 1)
7. 홍해 연안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16 : 3 : 6)
8. 서남 아라비아는 부강한 곳이었다. (16 : 4 : 3)
9. 아코바로부터 칠십 일간 여행하여 온 상인은 마립에서 그들의 상품을 유향과 교역한다. (16 : 4 : 4)

1. 나바테안이 류세 코메로부터 페트라까지의 도로를 장악하고 있다. (페리플러스 19)
2. 각기 다른 종족들이 류세 코메로부터 인도해까지 길게 늘어져 살고 있다. (페리플러스 19.)
3. 무자에는 양과 낙타를 치는 유목민이 살고 있다. (페리플러스 20.)
4. 무자는 아랍의 선박 주인과 선원으로 붐비며, 상거래가 빈번한 곳이다. (페리플러스 21.)
5. 오셀리스는 장이 서는 마을이며 물이 있는 곳이다. (페리플러스 25.)
6. 아라비아에서는 낙타가 유향을 나른다. (페리플러스 27.)
7. 모샤(아마도 리하이의 여행길에서 바운티풀에 해당되는 곳일 것이다)에는 유향이 "전 지역에 쌓여 있으며", 이곳에서 유향이 수출된다. (페리플러스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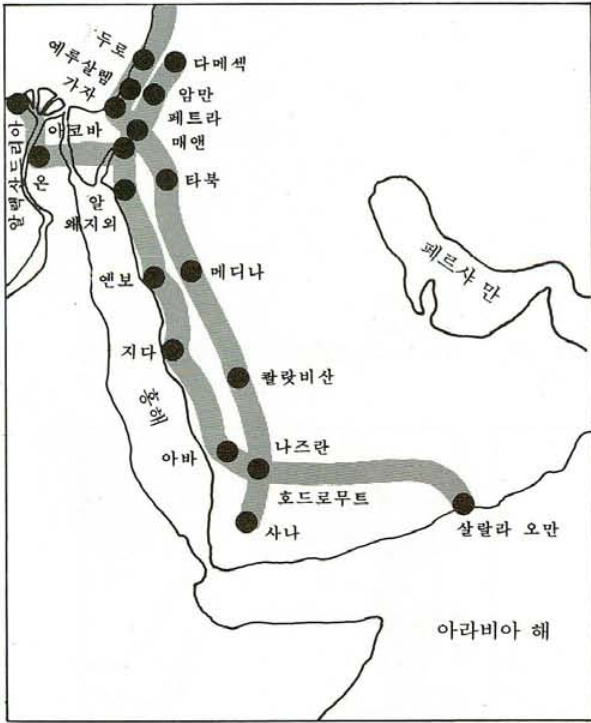


그림 2

살랄라로부터 이집트와 지중해에 이르는 고대 유향길

그림 3

고대 니스웨이 세나체립 궁전에서 발견된 이 돌 부각은 701년(열대 추정) 앗시리아가 유대의 라치쉬성을 함락시킨 사실을 묘사해 주고 있다. 이것을 자세히 조사하면 유대인 포로가 입은 의상은 리하이 시대를 전후로 1세기 내에 입던 의상이며, 예루살렘으로부터 25 마일 이내의 지역임을 보여 준다. 또한 주전 7세기 경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낙타에 짐을 실었는지를 보여 준다. 리하이와 그의 일행은 사막에 있었을 때 이와 같은 모양이었을 것이다.



그림 4

레뮤엘 골짜기에 지하되었던 리하이 일행의 최소 규모

성명

신분

- | | |
|--------------|--|
| 1. 리하이 | 지도자 |
| 2. 새라이아 | 리하이의 아내 |
| 3. 레이맨 | 리하이의 장남 |
| 4. 레뮤엘 | 리하이의 차남 |
| 5. 셈 | 리하이의 삼남 |
| 6. 니파이 | 리하이의 사남 |
| 7. 야곱 † | 광야에서 첫번째로 얻은 리하이의 아들 |
| 8. 요셉 † |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얻은 리하이의 아들 |
| 9. 조램 | 레이맨의 종(니일 4: 35) |
| 10. 이스마엘 | 적어도 두 아들과 다섯 딸의 아버지 |
| 11. 이스마엘의 아내 | |
| 12. 이스마엘의 장남 | 물문경에는 "이스마엘의 두 아들과 두 아들의 가족"(니일 7: 6)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그들에게 아내와 자녀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 13. 장남의 아내 | |
| 14. 이스마엘의 차남 | 에라터스 스노우 장로는 예언자 요셉이 리하이의 딸들과 이스마엘의 아들이 결혼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교집 23: 184) |
| 15. 차남의 아내 | |
| 16. 이스마엘의 장녀 | 조램의 아내(니일 16: 7) |
| 17. 이스마엘의 딸 | 레이맨의 아내 |
| 18. 이스마엘의 딸 | 레뮤엘의 아내 |
| 19. 이스마엘의 딸 | 셈의 아내 |
| 20. 이스마엘의 딸 | 니파이의 아내 |

* 물문경에는 니파이의 여자 형제의(니이 5: 6)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 이들이 니파이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예루살렘에서 낳았는지, 광야에서 낳았는지, 약속의 땅에서 낳았는지 알 수 없다.

† 야곱과 요셉을 레뮤엘 골짜기에서 출산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들의 이름은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지 약 10년 후, 바운티풀을 떠날 때 비로서 물문경에 언급되어 있다.(니일 18: 7)

것이다.) 그는 주님께 “녹여 만들” 광석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려 달라고 간구하였다. (9절) (근처에 광석 매장지가 있었는가?) 그리고는 “돌에서 녹여 낸 쇠붙이로 연장을 만들었다.” (16절) (이같은 과정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요하는가? 그들은 어떠한 종류의 연장을 필요로 하였겠는가?)

니파이의 형들은 그들이 겪는 고생으로 인하여 반항하였다. 니파이가 그들을 꾸짖자 그들은 화를 내며 “[그를] 잡아 바다 깊숙히 던져 버리려” 하였다. (48절) (이러한 일은 모래 사장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바운티풀에는 절벽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지당하여 떨기 시작하였으며, 니파이와 함께 배 만드는 일을 도왔다. 18장 2절에서 니파이는 이 배 만드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배 만드는 방법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배는 무엇으로 만들었겠는가? 배의 늑재를 올릴 만한 큰 나무가 바운티풀에 있었는가?) 마침내 “우리는 모든 것 곧 광야에서 거둔 많은 과일과 고기와 꿀과 식량을… 준비하고, 짐과 종자를… 배에 실었으며” (6절) (다시 종자라는 말이 나왔다. 그들은 또 다른 곡식을 추수하였는가? 어떠한 종류의 양식을 갖고 갔겠는가? 향해는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는가? 바운티풀이라 하는 곳은 비교적 좁아서 광야로 사냥을 나가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었는가?)

이상은 니파이가 우리에게 준 실마리와 우리에게 떠오르는 의문점들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의문에 대한 가능한 해답을 함께 생각하고 찾아 보며, 고대와 현대의 학자들의 연구 저서를 조사하여 가능한 한 모든 도움을 얻기로 하였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중동 7 개국에 펼쳐 있는 100여 명의 아랍 친구들에게 우리의 여행 계획을 서신으로 알렸다. 우리는 그들의 열렬한 반응과 도움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한량 없었다.

우리가 탐구하여 얻은 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많은 친구들이 기꺼이 우리의 연구 조사를 이해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나누어 준 것이었다. 특히 요르단, 암만의 살림 사드, 예집트, 카이로의 앤지 츄크리, 사우디 아라비아, 지다의 하십 다야니, 사우디 아라비아, 아바의 셰이크 헬완 하브타, 서 이스라엘의 사아디 파타피타, 그리고 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나벨 무스타카프 등 여러 사람의 희생적인 도움과 협조가 없었다면 우리의 여행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같이 많은 사람들의 충고를 토대로 하여 우리는 도서 관 탐구부터 시작하였다.

유타 대학교와 브리감 영 대학교의 중동학 학자들과 인터뷰를 가지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전개된 과업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 수 있었다.

점차로 분명한 영상이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물론 경을 주의 깊지 않게 읽으면 마치 리하이와 그의 가족은 사람이 전혀 살고 있지 않은 사막을 여행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물론경을 주의깊게 정독하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여행했음을 말해 주는 실마리를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리하이는 가족이 먹을 식량과 물과 들짐승을 갖고 여행하였다. 그들을 먹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 왔다는 기록은 없다. 그들은 일하여 식량을 구하였으며, 굶주림으로 불평을 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물이 솟아 나왔던 것과 같은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리하이의 가족 역시 당시의 다른 여행자들과 마찬가지로 물웅덩이에서 다른 물웅덩이를 찾아 여행하였을 것이다. (물론 그들은 하늘로부터 보낸 리아호나를 받았다.) 우리가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신선한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잘지 않는 곳은 없었다는 것이다. 물이 몹시 귀한 곳이기 때문에 물의 원천이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 일행이 천막을 쳤던 네이홈이라 하는 곳은 니파이가 “네이홈이라 불리웠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정착이 이루어졌던 곳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야영지, 곧 레뮤엘 골짜기, 세이저, 바운티풀 등은 그들 자신이 이름을 붙인 곳이다. 물론 이러한 곳들도 알려진 오아시스였을 것이나, 단지 리하이가 다시 이름을 붙였을 따름이다.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셈족의 관습이다. 이러한 장소들은 리하이 일행에게 상당히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하이는 가족에게 그의 교훈을 심어 주기 위하여 가족이 모두 알고 있는 개인적인 이름을 붙인 것이다.

니파이는 정규적으로 그들이 짐승을 번제로 드렸다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짐승은 어디에서부터 왔겠는가? 풀을 찾아 돌아 다니는 염소 떼나 양떼는 걸음이 느려서 그들의 여행 속도를 느리게 하였을 것이며, 낙타와는 달리 염소나 양은 매일 물을 먹어야 하는 동물이다. 그러나 리하이는 정상적인 카라반의 속도로 여행하면서 그 지역은 베두인 유목민으로부터 동물을 사거나 다른 물건과 교역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고대로부터 베두인 유목민족이 아라비아 반도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미디안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유목민으로서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다. (출 2:16, 3:1) 리하이가 여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북동 사우디 아라비아의 이 지역에는 상당 수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을 점령한 후 그곳에서 675,000마리의 양과 그밖의 많은 보화를 노획하였다. (민 3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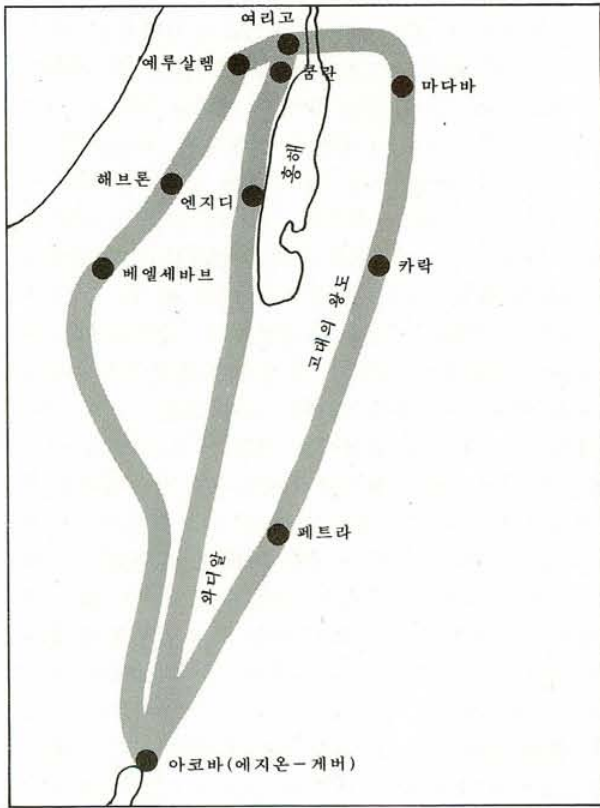


그림 5 주전 600년경,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코바까지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길

첫째 길: 동쪽으로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 건너 계속 가다가 왕도를 따라 마다바에서부터 아코바까지 내려가는 길이다. 둘째 길: 동쪽으로 여리고까지 가다가 사해의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와디 알 아라바를 통하여 아코바에 이르는 길이다. 셋째 길: 남쪽으로 헤브론까지 가서, 남서로 벨세바에 이르러 다시 와디 알 아라바를 거쳐 아코바에 이르는 길이다. 세번째 길은 변형하여 헤브론에서 방향을 바꾸어 엔지디에서 둘째 길과 만날 수 있다.



상: 리하이가 남쪽으로 향하는 왕도를 택하여 여행하였다면, 예전의 고대 수도인 페트라로 여행하였을 것이다. 모세 시대에는 페트라 셀라로 불리웠다. 페트라 성이 세워진 대지는 고대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역사적인 장소인 와디 무사(모세의 풀짜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질러 있다. 페트라는 왕도를 지나는 여행자로부터 통과세를 징수하여 부유한 성읍이 되었다.

중좌: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지 약 200년 후 돌에 새겨진 페트라의 그리이스식 무덤.

중우: 팔레스타인의 대도시 중의 하나인 여리고는 요단강이 사해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북쪽으로 11.2 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하: 이른 봄, 왕도에서 보는 모압 땅. 아마 리하이가 예루살렘에서 동쪽 길을 택하였다면 이곳을 통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리하이가 여행한 길 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니파이가 배를 짓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배를 만들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니일18:2) 그가 배를 본 적이 없다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홍해의 연안을 따라 배를 짓는 조선소가 있어서 대대로 그 기술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주전 600년 이전에 홍해의 연안을 따라 이어 있는 불모의 광야에는 마을이 있었고 문화가 발달되었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증인의 설명에 의하여 더욱 분명하다. (그림 1 참조)

희랍의 역사가, 스트라보씨는 남부 아라비아에 있는 “향내나는 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주전 24년에 엘리우스 갤러스의 지휘하에 에집트를 떠난 일만 명의 로마 보병들의 불행한 운명에 대하여 썼다. 이들 병정들은 우리가 리하이의 여행로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길을 따라 여행하였으며,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살았다고 확인하였다. 이 여행길은 그들이 아라비아에 도착한 북부 지점, 류세 콤포로부터 요르단의 페트라까지 뻗어 있는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길이었다. 그 여행은 어려웠다. (대다수가 기아, 갈증, 질병으로 죽었는데, 이는 충성스럽지 못한 안내자 때문이었다.) 이들은 낙타 등에 물을 싣고 다녔으며 아랍 “도봇 장수와 상인”으로부터 양식을 사 먹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마시아의 스트라보, 스트라보의 지리, 호레이스 레오날드 존스 역, 런던: 윌리엄 하인만 주식회사, 1930, 7: 353-63)

주후 57년경에 무명의 희랍 작가가 에리드레안해의 페리플러스라는 기행문을 썼다. 그는 아라비아 반도를 배로 여행하면서 리하이가 갔으리라 생각되는 길을 따라 가면서 여러 항구에 정박하였다. 이 책은 리하이 시대인 주전 600년 이전에 이미 많은 마을과 시장이 있었으며, 오만으로부터 유항이 거래되었고, 해운업이 성행하였으며, 계절풍이 길을 따라 불어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다. (에리드레안해의 페리플러스, 번역, 윌프레드 에이치 쇼프 역, 뉴우델리, 인도, 오리엔탈 북스 리프린트사, 1974)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고대의 지도자와 현대의 지도가 모두, 고대에서 가장 교통이 빈번한 도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항로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유항로의 하나는 홍해 연안을 따라 아라비아 반도 사분지 삼을 내려 오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나이란에서 다시 남쪽으로 예멘까지 가는 길이다. 두 번째 길은 첫번째 길에서 내륙 쪽으로 약 백여 마일 들어와서 첫번째 길과 비슷한 평행선을 이루어 남쪽으로 내려 오다가 나이란에서 교차된다. 그러나 이 길은 나이란에서 살랄라까지 동쪽으로 뻗어 간다. 이같은 도로들은 리하이 시대로부터 적어도 900년까지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2,200년 전에도 그 길이 사용되었다. (페리플러스, 120-21페이지 참조) 이상의 도로에 대한 증거는 오늘날에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2 참조) 이 두 길은 주전 10세기 경, 사바 문화가 전락상으로 세워 놓은 돌 요새의 폐허를 따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요르단의 페트라로부터 북위 19도 근처의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에 위치한 나이란까지의 도로도 수천 명의 낙타 여행자들이 도로 양변의 언덕에 있는 평평한 돌에 새겨 놓은 그림 문자로써 쉽게 파악될 수 있다. 이들 여행자들은 예루살렘, 예집트, 바빌론 등지에 세워진 성전에서 없어서는 안될 유항을 낙타에 잔뜩 싣고 이 단조로운 길을 따라 북쪽으로 여행하였던 것이었다.

길(trail)이라는 어휘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기 쉽다. 길(trail)이란 비교적 잘 다듬어진 좁은 길이나 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곡이나 골짜기를 따라 가는 거친 길을 의미한다. 길의 폭은 지역에 따라 1 킬로미터부터 18 킬로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리하여 여행자들은 같은 길의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서로 먼 거리를 두고 천막을 칠 수가 있었다.

우리는 홍해 해변을 따라 남남동으로 좋은 도로가 있음을 알았다. 리하이가 이미 건설되어 있는 도로를 피하여 물도 없는 산과 사막 길을 택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물론경에는 그가 그의 여행길을 감추려 하였다거나,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듯이 사람의 눈을 피하여 도망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리하이는 잘 알려진 대로를 택하여 여행하였을 것이다. 이같은 가정을 뒷받침 해 주는 또 다른 증거는 홍해 변방으로 여행하였다는 니파이의 기록이다. (니일2:5) 바로 이 길이 고대로부터 존재하였던 유항길인 것이다.

더우기 유항길은 오아시스나 고대 우물을 따라 이어진 길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천연자원국에서 그린 현대 지도에는 이 길을 따라 평균 30 킬로미터간격을 두고 118개의 우물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물이 없이 리하이 혼자 힘으로 길을 개척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사막 거주자가 찾지 못한 물웅덩이를 도시 거주자가 찾아 낸다는 일은 있을 법한 일이 아니다.

일단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여행길에 오른 후,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 리하이 시대의 카라반은 대부분이 아랍인이었으며, 사나(현재 예멘의 수도)에서 사바 민족이 리하이의 천막을 자주 드나드는 방문자였을 지도 모르며, 리하이 역시 그들의 방문자가 되었을 것이다.

여행에 앞서 연구 조사한 결과, 우리는 적어도 리하이가족이 남쪽으로 여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길을 이미 찾은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이 길의 존재는 더 많은 의문을 던져 주었다. 왜 유항길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저자는 낙타 한 마리당 225 킬로그램의 유항을 싣고 북으로

여행하는 대상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반 비크, 40—41페이지 참조) 우리는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성경을 참조하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배시에 향을 사용하도록 명하실 때 향을 섞는 비율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즉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각각 동일한 비율로 유향에 섞는 것이다. 이 혼합 향은 성스러운 것이었으며, 권능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를 사용하거나 태워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출 30:7—9, 34—38; 레 10:1—7) 이것은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상징이었으며, 원래는 지성소를 가리는 장막 곁에서 태웠다. 이것은 또한 동물을 죽이고 번제를 드릴 때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탈취제”로서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속죄제를 드리는 날에는 지성소에서 유향을 태워 “향기로운 연기가” 속죄소를 감싸게 하였다.

좀더 깊이 연구한 결과, 우리는 유향을 사용하여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고대 국가(에집트, 바빌론, 앗시리아, 페니키아 등지)에서 종교 예식에서 흔히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제 우리는 왜 유향이 그토록 많이 사용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그러나 왜 그토록 값싸며, 그것은 어디에서 얻은 것인가? 우리는 곧 유향이 아라비아 반도의 아래쪽 낫 모양으로 생긴 살랄라라 하는 좁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목인 유향목에서 황색의 유상액을 받아 말려 크림과 같이 만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살랄라는 오만의 설타나테에 있는 도파주의 아라비아 해변에 위치하고 있다. 유향목에서는 연간 두 차례씩 유상액을 받는다. 여기

에서 나오는 점성의 유상액에 강하고 향기로운 향기를 넣어 썩거나 태울 수 있다. 성경 시대에는 아기 예수께 황금이나 몰약과 같은 수준의 귀한 예물로 바쳐졌던 유향이 오늘날에는 껌 값에 지나지 않아 아라비아의 어린이들이 즐겨 씹고 있다. (마 2:11 참조)

이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의문을 불러 일으켜 주었다. 분명히 리하이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니파이가 나열한 재산 목록 “금은 보화”에서 리하이는 일반인 수입보다 많은 수입을 얻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리하이는 천막을 갖고 있었다. 내구성이 강한 염소털을 짜서 천막을 만드는 일이 매우 힘들고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었지만 그는 여러 개의 천막을 갖고 있었다. 안내자 중의 한 사람이며 유명한 역사 학자인 살림 사드씨의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대 지방의 여행자들은 굴 속에 야영을 하며 천막은 사막 여행자들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왜 도시 거주자인 리하이는 예루살렘을 떠날 때 장비 중의 하나로 천막을 준비하였겠는가?

살림씨는 리하이가 예루살렘 성에서 다소 떨어진 “상속의 땅”에 살고 있었으리라고 추정하였다. 그곳에서 리하이는 염소와 양을 치고 곡식과 꽃을 재배하여 고대 성곽으로 쌓여 있던 예루살렘 성내의 한 시장에 내다 팔았을 가능성이 짙다. 또 다른 가능성은, 리하이가 아랍인 대상으로부터 물건을 사서 예루살렘 시장에 팔기 위하여 사막으로 자주 나갔으며 그는 이 사업을 통하여 많은 재산을 모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장사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남부 사막에서 천막에 기거하면서 대상의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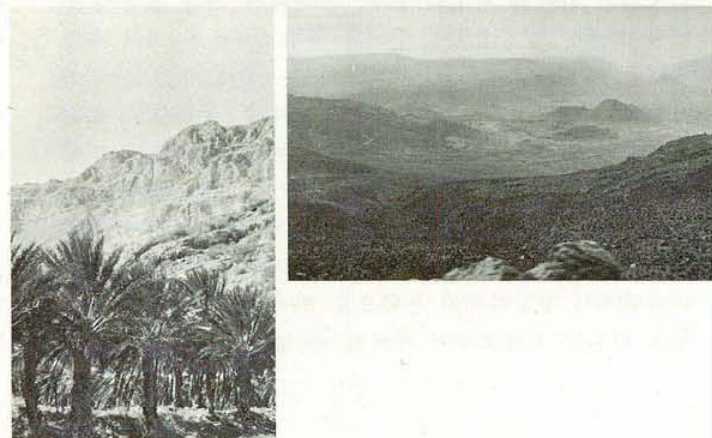
그림 6

리하이가 택하였을 가능성이 짙은 길

상: 아코바만은 홍해의 북동쪽에 자리잡은 만이다. 리하이는 “홍해 변방”(니일 2:5)을 여행할 때 이곳을 지나갔거나, 이곳에 잠시 머물렀을 것이다.

하좌: 사해의 황량한 서해안에 놀라움게 이루어진 엔지디 오아시스. 리하이가 이 길을 따라 남쪽으로 여행하였다면 이곳과 우물이 있는 다른 곳에서 묵었을 것이다.

하우: 와디 알 아라바의 근원.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길이 합쳐지는 곳을 볼 수 있다.



렬을 기다렸을 수도 있다.

물론 이상의 생각은 모두 가설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리하이가 사막 사람들과 교역을 하였다는 가설은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1) 그가 다른 준비보다는 가족과 여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천막과 동물을 준비했던 점, (2) 그의 아들들이 천막 다루는 법과 광야에서 여행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3) 리아호나를 얻기 전에 그들이 주요 여행로와 물웅덩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지역을 떠난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강한 증거를 얻게 되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 물건을 나르는 짐승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동물은 당나귀였다. 당나귀는 낙타보다 돌길이나 천정과 밧고니가 많은 좁은 성내 골목길을 다니기에 더 좋은 동물이었다. 낙타 대상이 예루살렘을 우회하여 지나갔던 이유의 하나는 (예루살렘의 상인들은 낙타 대상이 동쪽으로 지나갈 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 카라반을 맞았다.) 예루살렘의 토질이 날카로운 부시돌이 있는 바위였으므로 굽을 박지 않은 부드러운 낙타의 넓은 발바닥을 베어 내기 쉽기 때문이었다. 주전 23세기 경, 시리아의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아코바 만에까지 뻗어 있는 서해안의 모랫길과 비교적 부드러운 왕도(“왕도” 뉴 바이블 사전, 제이 디 더글라스 편집,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윌리엄 비 어드먼즈 출판사, 1973, 700페이지)를 따라 낙타 대상의 행렬은 북으로 향하여 계속되었다.

여러 각도에서 깊이 연구 검토한 결과, 우리는 가상 여행자 목록과 예루살렘으로부터의 리하이의 여행 일정을 어느 정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리하이와 함께 여행했을 가상 여행자와 같은 수를 만들어 함께 출발하였다. 리하이가 그의 아내와 아들 4명을 데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니파이가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여동생”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리하이의 일행에는 딸들도 포함 되었을지도 모른다. (니이 5 : 6) 그러나 이 딸들이 광야에서 얻은 딸들일 수도 있다. 후에 이 그룹에는 이스마엘과 그의 아내, 적어도 두 사람의 기혼 아들과 그들의 가족(니일 7 : 6), 다섯 명의 미혼 딸, 그리고 레이벤의 종이었던 조렘이 합세하게 되었다. 따라서 리하이의 광야 여행단은 약 2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4참조)

왜 리하이는 다른 가족 아닌 이스마엘의 가족을 택하게 되었을까? 물론, 리하이의 네 아들과 조렘의 아내로 짝지워 줄 수 있는 다섯 딸을 둔 가족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리하이가 다른 가족이 아닌 바로 이스마엘 가족을 택한 이유가 그것 한 가지 이외에는 없었을까? 에라스투스 스노우씨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약간의 실마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에 따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리하이가와 결혼하였다”(설

교집 23 : 184)고 언급하였다. 물론경에는 “이스마엘의 두 아들과 두 아들의 가족”(니일 7 : 6)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스마엘이 두 아들을 두고 있었으며,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이미 결혼한 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요셉 스미스의 의미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리하이에게 큰 두 딸이 있었으며, 이스마엘가와 리하이가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사돈간이었다는 결론을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리하이로서는 나머지 가족도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하여 멸망을 피할 수 있게 하고 싶었을 것이 당연하였다.

보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이들 여행단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는 각각의 연령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날 당시의 니파이의 나이를 십대로 보고 있다. 그러나 레이벤의 낫쇠판을 얻기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왔을 때에는, “나이는 어렸으되 체격은 컸고”(니일 2 : 16; 4 : 31도 참조)라고 자신을 묘사할 정도로 신체적으로 장성하였다. 그는 조렘을 붙들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강한 힘이 있었으며, 레이벤의 머리를 벨 정도로 강하였다. (니일 4 : 31, 4 : 18 참조) 그는 또한 구세주의 시현을 비롯한(니일 11장) 여러 가지의 위대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다. 후에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마엘과 그의 가족을 리하이에게 데리고 갔다. 이제 니파이는 결혼할 만한 나이가 된 것이며(니일 16 : 7), 그의 아내는 광야에서 자녀를 낳았다. (니일 18 : 19)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날 당시의 니파이의 나이는 16세 가량이었으며, 아마 17세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18세에 그가 레이벤의 목을 베고 조렘을 붙들었으며, 19세에 결혼했으리라고 추정하기에 이르렀다.

조지 큐 캐논 장로도 니파이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15세 남짓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조지 큐 캐논,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의 생애, 솔트레이크시티 컨트리뷰터사 1888, 14페이지)

니파이의 형들이 두 살 터울로 태어났다고 가정하면 그들의 연령도 추산할 수 있다. 어머니 새라이아가 16살에 초산하였다고 가정하면, 광야에서 얻은 막내 아들 요셉을 낳은 때는 44세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관습상 리하이는 아마 아내보다 10살 가량 위일 것이라고 우리의 중동 지방 친구들은 말한다.

리하이에게는 결혼한 아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 반하여 이스마엘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결혼한 것으로 보아, 이스마엘이 더 늙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겠다. 이스마엘이 적어도 리하이보다 4살 위일 것이며, 이스마엘의 아내는 그보다 10살 아래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원래의 리하이 여행단 일행이 위에 열거된 6명 뿐이었다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몇 마리의 당나귀를 필요로 하였겠는가? 양식과 개인의 소지품과 천막을 싣고

가기 위해서는 아홉 마리 내지 열 두 마리의 당나귀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이와 같은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두인 유목민을 방문하여 얻은 결과였는데, 천막 하나의 무게는 약 500파운드 가량으로, 지붕, 벽, 칸막이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세 마리의 나귀에 각각 나르는 것이 통례였다. 따라서 천막을 나르는 데 세 마리의 나귀가 필요하였을 것이고, 각 사람이 자신의 식량과 소지품을 갖고 한 마리씩 나귀에 탔을 것이므로 최소한 아홉 마리의 나귀가 필요하였으리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스마엘가가 도착함에 따라 가축의 수요도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택할 가능성이 있는 길이 세 가지가 된다. 이 세 가지 길은 모두 유향길의 교차로이며 홍해를 따라 남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문인 아코바까지 이르게 되어 있다. 그중 한 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황량한 유대 광야를 통하여 동쪽으로 여리고까지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왕도와 합쳐져, 마다바 카라크, 페트라 등지의 도시를 거쳐 아코바에 이르는 길인데, 현재 이들 도시는 모두 요르단의 해쉬미테 왕국에 속하여 있다. 이 길은 산과 와디를 통하여 남북을 이어 주는 고대 주요 중주요였다. (와디란 주위가 가파른 산맥으로 둘러 싸여 있어서 폭우가 쏟아지면 모래나 자갈을 섞은 물이 흐르나 비가 그치면 곧 마른다. 우기에는 매우 위험한 진흙의 급류가 흐르나, 건기에는 거칠어서 지나갈 수 없는 산길을 완만하게 메꾸어 버린 모래 “초고속 도로”가 되어 여행하기 편리한 곳으로 변하게 된다.)

리하이이는 이 동쪽 도로를 통하여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왕국을 여행하였을 것이다. 위험을 겪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분명히 각 국경을 넘을 때마다 관세를 지불했을 것이다.

이들이 택했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헤브론까지 내려 와 남서쪽으로 벨세바까지 이르면 후에 와디 알 아라바를 거쳐 아코바에 이르는 길이다. 이 길을 따라 헤브론에서 솔트산을 넘어 가파른 산등성을 따라 내려 가면 엔지디 오아시스 바로 밑에 있는 사해의 서해안과 맞닿게 된다. 여기에서부터 다음에 설명될 길과 합쳐진다. 이 길은 상당히 복잡하게 생겨서, 거의 이 길을 택하지 않을 것 같다.

세번째 길이란 예루살렘으로부터 첫번째 길과 같은 길을 가다가, 여리고 못미처서 남쪽으로 돌아, 사해의 서쪽을 통하여, 쿤란의 동굴과 절벽을 거쳐, 와디 알 아라바를 통과하여; 아코바에 이르는 길이다. 중동의 과거 역사에 대해 배운 중동의 친구들은 이 세번째 길이 리하이 일행이 여행했을 가능성이 큰 길이라고 말해 주었다.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어떠한 길을 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세 가지 길은 모두 사해의 남부에 있는 와디 알 아라바를 통하여 아코바 만에 있는 아코바까지 이르러 홍해와 연결되어 있다. 아코바는 조선 공업의 중심

지로 제련 공업의 중심지였으므로, 이곳에서 어린 니파이는 많은 교육을 받아 후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에지온게버라고 불리웠던 아코바는 고대 에돔 사막국의 주요 도시였다.

아코바는 예루살렘과 고대 홍해 해안길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로 문명과 미개의 교차지였다.

독자는 니파이가 “홍해 변방에 이르러”(니일 2:5) 광야로 “사흘 동안”(니일 2:6) 여행하였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후에 레뮤엘 골짜기에서 천막을 쳤다. 따라서 이 골짜기에 있는 리하이의 천막은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였으나 현재는 에돔인의 영토인 홍해의 주요 항구로부터 사흘 동안 여행하는 거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길다. 아코바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여러 차례 여행하는 동안 니파이는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사실 물몬경은 낚시판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마엘의 가족을 데려 오기 위하여 이 지역을 4 차례 이상 여행하였다고 말해 준다.

리하이이는 아코바에서부터 어디로 갔겠는가? 물론 그들 앞에는 아라비아 반도가 놓여 있다. 그러나 이 길은 118개의 우물을 따라 남남동으로 길게 뻗은 잘 알려진 유향길이다. 여기까지 연구하였을 때 교회 역사의 한 가지 자료가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리하이이는 홍해를 따라 내려 와서 거대한 남쪽의 대양을 건너 이 땅에 왔읍니다.” 이 땅이란 미대륙을 의미한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67 페이지)

홍해가 북남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하이 일행은 해안을 따라 “남남동으로” 여행하였다. (니일 16:13) 그런 다음 이스마엘이 나훔에서 죽은 후, 그들은 “거의 동쪽으로만”(니일 17:1) 나아가 바다에 이르르게 되었다.

니파이가 “거의” 남남동으로 가다가 “거의” 동쪽으로 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었기 때문에, 리하이 일행의 종착지인 바운티폴의 위치를 쉽게 유추할 수 있었다.

니파이의 설명에 따르면 바운티폴이라는 곳에는 물과 과일과 배를 만들 수 있는 많은 나무와 풀, 들꿀벌, 꽃, 산, 해안선, 깊은 바다를 굽어 볼 수 있는 절벽, 금속광 등이 있어야 한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페림으로부터 서까지 이르는 총 1,400마일의 아라비아 반도 남해안에는 이 종착지와 연결되는 곳이 단 한 군데 밖에는 없다. 이곳은 파라 산맥이 병풍처럼 뒤에 둘러 쳐져 있는 작은 만을 따라 길이는 28 마일 가량, 폭은 7 마일 가량의 낮모양의 땅이다. 연중 3개월 동안은 계절풍을 실은 구름이 바다에 먼한 산기슭을 따라 모여 여름의 안개와 비를 가져다 준다. 이 지역이 바로 오만의 설타나레에 있는 도파주의 살랄라이다. 이 해안을 따라 양쪽으로 황무지가 뻗어 있다. 아라비아 반도의 해안에서 상당한 강우량을 보여서 큰 나무가 자랄 만큼의 상당한 강우량을 가진 지역

은 이곳 한 곳 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천년 이상이나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고대 이 지역이 교역이 성했던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였다. 살랄라는 지상에서 유항목이 자라는 유일한 곳이었다. 현재는 예멘과 아프리카 대륙 해안의 소말리아 지방으로 이식되었으나 리하이 시대에는 살랄라가 독점하되 하였다.

유항길의 출발지인 아라비아 해안 지역에서 배를 만들 만한 재목이 충분히 있는 유일한 지역인 살랄라가 바운티풀이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한가? 우리는 지도와 고대 역사를 분석하면서 아코바로부터 살랄라까지 리하이가 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길을 연결해 보았다.

우리는 주요 유항길이 북위 19도 가까이에서 동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유항길의 방향이 다시 남쪽으로 전환되는 나이란에 리하이 일행이 도착하였을 때 이들은 동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하여 대엠프티 쿼터 사막의 남단 언저리를 따라 이어진 별로 여행자들이 택하지 않은 유항길을 택해야 했다. 아마 이들은 리아호나가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길을 여행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리하이 일행은 번성한 수도(고대에는 마립이라 불리웠다.)와 곡식이 잘 자라는 하드라무트 계곡이 있는 위대한 이교도국, 사바 왕국(반 비크, 41페이지)을 피하여 갔다. 아마도 리하이는 그들 일행 중 방대한 자들이 사바 왕국의 번성한 문화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지도 모른다. 여러 해 동안 여행한 후, 남부

의 번성한 대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들 중 몇명이 더 이상 여행하기를 거절하였는가? 여행자들이 별로 택하지 않는 동쪽 길에는 물웅덩이가 66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도 있다. 열대 또는 아열대 지역인 바운티풀 낙원에 그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는 니파이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겠다.(니일 17:1)

다음에 우리는 그들의 여행 시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살랄라까지는 2,102 마일이 된다. (그림 7 참조) 낙타의 속도는 어떠한가? 나귀의 속도는? 여기에서 우리는 낙타를 탄 경험이 많은, 전 영국군 장교였던 살림 사드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와디 아라바에 주둔하면서 많은 베두인 유목민을 친구로 사귀었다. 그는 짐을 실은 나귀 대상이 6 시간 동안 20 마일을 여행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아랍의 역사를 연구 조사한 그는 수천 마리의 낙타 대상이 카이로에서부터 메카까지 순례할 때 하루에 평균 24 마일을 여행하였다는 예를 보여 주었다.

또한 성경에서 축복사 야곱이 그의 아들과 아내와 함께 가축을 거느리고 밧단아람으로부터 길르앗산까지의 378마일 거리를 낙타로 열흘 동안 여행하였다는 기록에서 추산해 볼 수도 있다. (창 31:18-23) 이들이 평균 하루에 38 마일을 여행한 셈이었다. 야곱은 성난 장인 라반에게 붙들렸는데, 라반은 같은 거리를 이레 동안 여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루에 평균 45 마일씩 여행한 것이었다. 이상의 모든 평균치를 감안하여 볼 때,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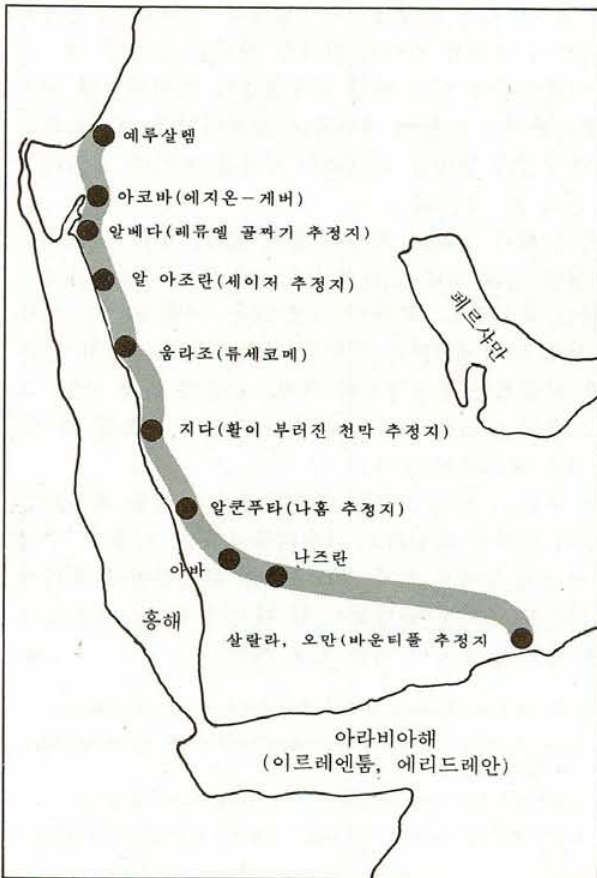


그림 7

광야에서 리하이가 택하였을 가능성이 짙은 길
 주전 600-592년
 (지도상에 먼저 나와 있는 것은 현재의 지명이며 물문경, 성경, 기타 고대 문헌에 나타나 있는 지명이 괄호안에 나와 있다)



상좌: 겨울에 살랄라 언덕의 건조를 추수하는 모습

상우: 살랄라의 좌라 산맥의 산등성이는 주위의 사막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 (이곳이 바운티풀일 것이다)

하우: 살랄라의 벼랑. 아마 이곳에서 니파이의 형들이 니파이를 바다 깊은 곳으로 빠뜨려 하였을 것이다.



리하이 가 사용한 동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하루에 약 24 마일을 여행할 수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약 90일 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살탈라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니파이는 팔년 만에 바운티폴에 도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니일 17:4참조) 그렇다면 그 팔 년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인가?

처음부터 시작해 보자. 리하이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떠나 실없이 시간을 허송하지 않았을 것이며, 적어도 하루에 30 마일씩 여행하였으리라고 추정한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아코바까지 가는 데에는 팔일 내지 십 이일 걸렸다고 볼 수 있다. 그곳에서 그들은 광야를 “사흘 동안” 여행한 후에 레뮤엘 골짜기에서 천막을 쳤다.(니일 2:6) 지도와 지역을 살펴보면, 그들이 천막을 칠 만한 오아시스는 사우디 아라비아, 와디 엘 아팔에 있는 알베다 한 곳 밖에 없다. 이곳에서 그들은 약 이삼 년간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예루살렘까지 왕복 약 한 달이 걸리는 여행을 두 차례씩이나 하였으며, 레이밴과 홍정을 하고 금은 보화를 모으는 등 여러 날 동안 지체하면서 늦쇠판을 갖고 온 일 등이 모두 이때 이루어졌다. 그후 그들은 오랫동안 늦쇠판의 기록을 읽고 연구하였다.

이스마엘 가족이 리하이 일행과 합하여졌을 때 그들은 다섯 쌍의 결혼식을 올렸을 것이다.

또한 리하이는 곡식을 심으면서 시간을 유효하게 보냈을 것이다. 이것은 리하이 일행이 레뮤엘 골짜기를 떠나기 전에 니파이가 말한 말에서 지적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광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데 모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도 남은 대로 모두 모았으며, 광야로 가져갈 온갖 씨앗의 종자를 한데 모았느니라.”(니일 16:11) 그렇다.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쉽게 여러 해를 보냈을 것이다.

레뮤엘 골짜기의 천막은 리하이가 쉬기에 안전한 곳이었을 것이다. 그는 아코바의 조선소로부터 이국인 미디안까지 사흘 동안 여행하였으며, 그리하여 그 당시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첫번째 야영이 끝난 후, 적어도 네 쌍의 결혼(조램은 이스마엘의 다섯 딸 중의 한 사람과 결혼하였다.)으로 연결된 두 가족은 짐을 꾸려 홍해를 따라 남남동으로 나흘 동안 여행하여 세이저라 불리우는 곳에 도착하였다. 지도를 따라 살펴보면, 나흘 동안 그들은 100 마일을 여행하여 와디 아즐란의 아즐란 오아시스에 도착하였을 수가 있다.(그림 7 참조) 이곳은 그들이 잠시 머무르기에 적당한 곳이다.

리하이 일행이 세이저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아마도 곡식을 심고 거둘 수 있는 기간 동안 머물렀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니파이는 얼마 후 다시 남남동으로 향하여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다.(니일 16:14) 여기에서부터 그들은 생계를 사냥에 의존하였던 것

같다.(니일 16:15) 왜 그랬을까? 농사를 실패하였나? 어떠한 종류의 짐승을 발견하였는가? 그들은 항상 여러 날을 여행하다가 천막을 치고 거하면서 짐승을 사냥하였다. 니파이는 이 야영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고통의 천막이었다. 니파이의 강철 화살이 부러졌고 다른 화살은 탄력을 잃었기 때문에(16:21) 가족은 굶주림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아마 가족은 다시 곡식을 심어 보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니파이가 주님의 지시를 받아 나무 화살을 만들어 다시 사냥을 나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가족이 19도 위도 근처의 위치에 네이홈까지 같은 방향으로 여행하기 전에 또 하나의 추수기가 지났을 것이다. 여기에서 일행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이스마엘이 죽었으므로, 이곳에서 오랫동안 지체하였을 것이다.(16:34) 이스마엘을 편히 모시기 위하여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며, 장례가 끝난 후에야 비로서 다시 여행을 떠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니파이는 네이홈에 머무른 것에 대하여 리하이가 “잠시” 머물렀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16:33)

그들은 네이홈을 떠나 “거의 동쪽으로만” 향하여 나아가 이르레엔툼 연안의 바운티폴에 도착하였다.(니일 17:1-5) 그들은 광야에서 팔년 동안 지냈으며, 바운티폴에서 지낸 기간은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광석을 녹여 연장을 만들고, 배를 만들며, 항해하는 데 필요한 종자를 재배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았다. 이삼 년 이상 걸렸겠는가? 성경의 연대와 물문경의 연대와는 4 년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들이 바운티폴에 있는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그들이 미대륙에 도착하였을 때 리하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확인하는 시현을 보았다.(니이 1:4; 왕하 25:2 참조)

이렇게 해서 우리의 조사는 끝이 났다. 우리가 조사하여 연결한 길과 연대는 리하이가 오만의 살탈라에서부터 시작되는 유향길로, 고대에 가장 많은 여행자들이 택하였던 길로 여행하였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가정은 이름있는 물웅덩이의 위치, 그룹의 여행 방향, 그들이 도중에 만났을 사람들에 대하여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여 준다.

이제 우리는 직접 그곳을 여행하면서 거리를 확인하고 유향길의 흔적을 확인하고 바운티폴이라는 이름이 수세기 전 오늘에도 역시 적합한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세운 가정을 실제로 증명해야 할 단계에 왔다. 이제 아라비아로 향하여 보자!(다음 호에 계속) *

*역자주 1. 영어 원문에는 fountain of Red Sea(홍해의 샘)이라고 되어 있음.
2. 영어 원문에는 “up to the Jerusalem”(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로 되어 있음.
3. 영어 원문에는 “went up again”(다시 올라갔다)으로 되어 있음.
4. 영어 원문에는 “travel and wade”(여행하고 헤쳐 지나다)로 설명되어 있음.

리하이의 여행로를 따라

제랄드 실버

키기를 꺼리며, 따라서 비자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나 여행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주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경우에서도 우리가 목적했던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

힐튼 부부가 이 사업을 맡게 된 이유는 그들이 중동을 사랑하고 특히 아랍의 친구와 두터운 우정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었다. 린은 12년 동안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수십 차례나 중동을 여행한 바가 있었다. 호프 역시 아랍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이들 부부는 아랍 국가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 재단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오만의 살랄라(바운티폴로 추정되는 곳)까지 리하이가 걸었던 길을 추적함에 있어서 우리는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서는 이스라엘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입국 허가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호프는 워싱턴 디 시에 가서 오만 대사와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를 만나 입국 허가를 신청하였다. 입국 수속 절차는 너무도 느리게 진행되었다. 린은 그의 몇몇 아랍 실업인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았으나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1월 중순경 우리가 미국을 떠났을 때까지도 우리는 두 나라의 비자를 받지 못하였다.

우리는 당시 십이사도 보조로 계시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로부터 우리가 목적하는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게 해달라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

헤일즈 장로님의 말씀만 믿고, 우리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먼 곳까지 비행기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우리가 이집트의 카이로에 착륙하였을 때도 여전히 오만과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비자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 우리는 주님의 사업은 참되다는 브리감 영의 다음의 말씀을 재삼 인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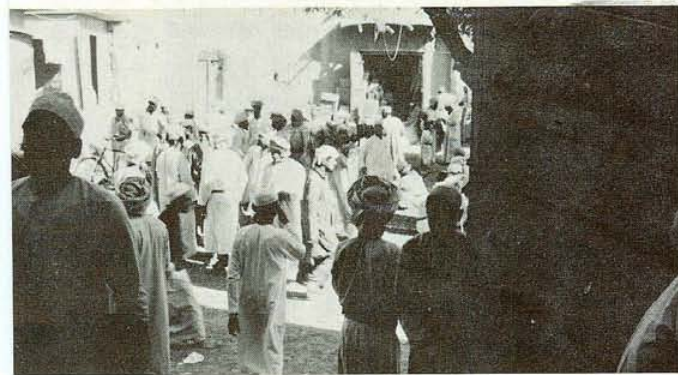
“여러분이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나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때, 그 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자도 없이 오만의 맥스캣에 착륙하였다.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영국인에게 공항 입국 관리소 관원이 곧 비행기로 크콧을 떠나라고 명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 그 입국 관리소 관원이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그 나라에 옛날 동안 머무를 수 있는 허가를 내 주는 호의를 보였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마는, 당시 접전 지역으로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던 살랄라로 갈 계획을 관원에게 이야기했다면 결코 입국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우리는 살랄라로의 여행을 서둘렀다. 어느날 밤, 맥스캣에 있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서 나는 헤일즈 장로가 내게 주신 축복의 일부가 생각났다. 그분은 내게 아랍 국가에 있는 동료(언론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에게 교회에 대하여 되도록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교 회가 조직된 지 146년이 지난 지금까지 리하이가 지나갔던 광야의 길을 다시 추적해 보고자 중동 지역을 탐험한 회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엔사인 잡지사에서 린과 호프 힐튼 부부에게 이 여행을 부탁하였고, 힐튼 부부가 나에게 사진 기자로 함께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때,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교회에 보고하고자 결심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것도 알았다. 아랍국은 외국인(특히 미국인과 기독교인)을 자국내로 입국시

다음날 아침 일찍, 린과 나는 오만의 공보부 장관을 만나러 갔다. 그는 우리를 보증한다는 미국 대사의 친서만 있으면 살랄라로 갈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미국의 관원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었으므로, 오래지 않아 우리는 바운티폴로 추정되는 곳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살랄라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멀리서 포성이 은은히 들리기는 하였으나 평화로운 곳이었다. 우리가 조사 연구한 결과, 아랍의 작은 마을은 리하이 시대로부터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공보부의 관원 한 사람은 살랄라에서 회교 군주의 목장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미국인을 만나게 주선해 주었다. 그는 그곳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잠시 머무르는 동안 그는 여러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었다.

린은 오만에서 사우디 아라비아로 들어가는 임시 비자를 간신히 얻었으며, 호프와 딸 신디아를 지다로 보냈다. 우리가 아라비아의 다레인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나는 비자를 얻지 못하였다. 사태가 다시 악화되는 것 같았다. 나는 즉시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린에게 필름 여러 통을 건네 주고는, 바레인이라는 조그마한 나라로 추방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기도를 드린 후에 나는 그곳에서 미국인 관원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으며, 나는 그 편지를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으로 가져 갔다. 몇 시간 후, 나는 도장이 찍힌 비자를 손에 쥐게 되었다. 6개월만 지났었다더라도 나는 결코 사우디 아라비아로 들어가는 비자를 얻지 못하였을 것이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기적적인 일이었다.

그후로 여러 차례의 기적이 연이어 일어났다. 다시 아라비아의 다레인을 향해 가기 위하여 바레인 공항으로 달려가 보니, 모든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그대로 묶여 있었다. 공항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틀째나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다음 비행기로 떠나려 했던 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서 있는데, 비행기포 개찰원이 다가와서 내 표를 받더니 별다른 뚜렷한 이유도 없이 대기 번호 1번으로 찍어 주었다. 그 비행기에는 두 사람만이 탑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적은 계속 일어났다. 다레인에 도착하였을 때 나는 또 다시 지다로 가기 위해 대기하여야 했다. 그곳에서도 비행기포 개찰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역시 나의 표에 대기 번호 1번으로 찍어 주어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기도의 덕분이었다.)

지다의 호텔은 항상 여러 달, 심지어는 1년 이상 앞두고 예약이 되어 있었다. 그러한 곳에서 방을 찾기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비행기 여행 중에 나는 지다에서 온 아랍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숙소가 마련되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는 "오늘밤은 나와 함께 지냈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별장에서 묵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힐튼 가족을 만나기 위해 아바로 가야 했다. 그는 나를 비

행장까지 전송해 주었다. 다시 나는 대기 번호 1번을 받았다.

힐튼 가족이 나보다 이틀 먼저 출발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아바에 가서 어떻게 그들을 찾을지 막연하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주님께 기도로서 간구하면서 지다 비행장에 앉아 있다가 위를 쳐다 보니 힐튼 가족이 걸어 들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들도 나와 같은 비행기표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바에 도착하자 우리는 지역 군주의 허락 없이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다는 경고를 받았다. 우리는 도움이 될 만한 몇몇 지역 역사가들을 찾아 보기 위하여 호텔 주인의 형제에게 문의하였다. 그는 미국에서 두 가지 학위를 받았으며 군주와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 지역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었으며, 사흘 동안 우리를 데리고 도시 주변을 구경시켜 주었다.

아바를 떠나려고 비행장에 갔을 때 사진을 찍던 나를 본 관원이 필름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행히도 새 필름을 넣은 직후였기 때문에 두 장 밖에 찍혀지지 않은 필름을 카메라에서 꺼내 주었다. 그는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다섯 통의 필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또 다른 관원이 나의 목직하고 큰 카메라 장비를 보고는 다른 사람들이 비행기에 다 탈 때까지 옆에 비켜 서 있으라고 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된 순간이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였다.

의심할 여지없이 성신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가 내게 오라고 손짓을 하고는 나의 여권을 훑어 보더니 탑승하라고 말하였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의 변화를 역력히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요르단에서 베두인 유목민 토산품점을 발견하였는데, 그곳에는 리하이가 여행길에 갖고 갔을 법한 물건, 즉 가죽 물 주머니, 낙타 마구, 족제비 가죽으로 만든 올리브 기름 주머니 등의 물품과 많은 사진이 있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우리는 요르단의 공보부 장관을 만나, 교회 계보과를 위하여 그 나라의 가족 기록서를 사진찍을 수 있도록 협정을 보았다.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의 서방 점령지를 관할하는 장관을 만나서 그곳의 아랍 기록을 사진에 담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가족 기록은 아랍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가족 기록을 보관하는 교회의 원리를 설명했을 때 그들은 매우 기뻐하였다. 그들의 기록이 화강암 동굴 속에 영원히 보존된다는 말을 듣고는 몹시 기뻐하였다.

아랍인은 매우 훌륭한 민족이다. 그들은 모두 천성적으로 다정하고 교활하지 않다. 그들이 복음을 받으면, 틀림없이 강한 신앙이 그들 중에 불붙을 것이며,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행을 하는 동안 나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나라에 교회의 문을 열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김블 대관장님의 권고의 말씀을 되새겼다.

우리에게 문이 열리고, 이유도 알 수 없이 우리를 그들 나라에 받아들인 것 등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결과를 경험하였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앞에서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것을 보았다. *



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8살이 채 못된 소년이지만 기도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섯 살 되던 해에 심한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는 저와 저의 친척의 간증을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미 콜롬비아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식구가 교회에 입교한 지 2년이 지난 성탄절에 미국에 계시던 할머니가 저의 집을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지난 후, 교회 회원이 아닌 할머니는 저희 집에 더 머물면서 선교사의 토론을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지혜의 말씀에 어긋나는 습관을 버리시지는 못하셨지만, 젊은 선교사가 할머니께 전해 주는 말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약 4 개월이 지났을 때, 침례를 받지 않겠다는 결심을 선교사들에게 말하겠다고 하셔서 우리 가족은 모두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교회에 대하여 공부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6월 초순인 어느 날, 저는 학교 앞에서 학교 버스에서 내려, 옆을 보지 않고 길을 건너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버스에 치였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형 로날드와 누나 재키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구

폴 엔리크 고메즈

형은 부모님을 부르러 집으로 갔고, 누나는 학교 양호 선생님과 함께 저를 다른 버스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픔을 참고 울음도 참았습니다. 제가 너무 조용하게 있었기 때문에 누나와 버스 운전기사는 제가 죽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누나는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발 제 동생 폴 엔리크를 데려 가지 마세요. 저의 신앙과 사랑을 모두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읍나이다."

누나 기도가 끝났을 때 제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기도의 능력으로 제가 살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병원에 옮겨지자 의사는 곧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우리 가족 중에는 유일하게도 RH⁻형의 혈액형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혈액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부모님과 몇몇 지부 회원들이 저와 같은 혈액형을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RH⁻ 혈액형이 있는 곳을 알았지만, 그 피가 특별 앰블란스로 온다 해도 두 시간 반 가량은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초등학교 회장님이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회장님의 혈액형이 제 혈액형과 같다는 것이 밝혀지자 그분은 기꺼이 저에게 헌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은 4시간 3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의사는 소화 기관과 간장과 오른쪽 콩팥 그리고 폐에 심한 상처가 난 것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수술을 마친 후 저는 아버지와 지부장이신 듀폰 형제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후에 회복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초등학교 지도자와 별님반 친구들도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후에 저의 할머니는 복음을 받아들이셨으며, 지금 20명의 가족이 말일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척 기쁩니다.

저는 저처럼 교회가 진실하다는 강한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여러 모로 돕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

그날 밤 늦게 아버지께서 어둡고 연기가 자욱한 통나무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 조지는 이불 깃을 끌어 내리고는 동생 지미의 곱슬 머리 너머로 빠끔히 고개를 내밀었다. 화롯가에서 즐고 계시던 엄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버지에게 뭔가 조용히 이야기하셨다. 피로에 지친 나즈막한 음성으로 아버지께서 뭔가 대답하셨다. 조지는 아버지의 젖은 외투를 벗겨드리는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낡은 가죽 외투 틈에서 물이 새어 나와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엄마는 머리를 흔들시면서 불을 지폈다. “여보, 이제 이 일을 그만 하셔야 겠어요. 너무 춥고 몸이 젖지 않아요? 당신 장화 좀 보세요.”

조지는 엄마의 말을 간간히 들을 수 있었다. 엄마가 조지와 지미 그리고 아만다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조지는 알았다.

밤낮으로 아이오와 대평원을 휘몰아치는 바람이 소년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였다. 조지아는 몸을 움츠리면서 동생에게 바싹 다가 붙었다. 아이오와에 있는 진흙을 전부 모아도 우리집에 난 틈을 메꿀 수는 없는 모양이지. 조지는 생각했다. 조지는 아버지와 함께 얼어 붙은 진흙을 얼은 벽돌에 이겨 붙이려 하긴 했으나, 역시 바람은 들어올 구멍을 찾고 마는 것이었다.

“이 길 밖에 없지 않소” 심한 기침과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기침은 조지를 두렵게 하였으며,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과 켩하게 들어간 검은 눈이 그를 두렵게 하였다. 하루 종일 추운 곳에서 젖은 몸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침은 날로 심해갔다.

그날 아침 조지와 아만다가 점심을 우유통에 넣어 아버지께 갖다 드리면서 그들은 어둡고 깊은 구멍가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그 아래에서 아버지가 걸쭉한 진흙을 파 뚝 위에까지 올려 주는 것이었다. 물이 그의 발목뼈 주위에 튀기면서 우물 들레와 아버지의 장화에 얼어 붙었다.

“며칠만 더 고생하면 이 일도 끝난다. 애들아.” 아버지는 웃으면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말했다. “그러면 마차를 살 돈이 생길거야.”

마차! 아버지는 마차와 한 쌍의 황소를 사고 싶어 하셨다. 시온에 가서 그곳에 이미 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었던 것이었다. 영 대관장님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시온으로 가면 그의 가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녀들도 마차를 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길 밖에

조이스 비 베일리/글
앨버트 미키니/그림

조지와 아만다는 통을 아버지가 계시는 우물 아래로 내려 보내고는 우물 가장 자리에 걸터 앉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노래를 차꾸만 되풀이하여 불렀다. 아이들의 장난에 아버지는 크게 웃으셨다. 아버지가 웃으시는 것을 보니 아이들도 즐거웠다. 그러나 아버지의 웃음이 심한 기침으로 변하고 말았다.

아이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서로 마주 쳐다보기만 하였다. 이윽고 아버지가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 “괜찮다. 기관지가 조금 나빠서 그런거야. 곧 나을게다.”

고요한 밤이 되었을 때 조지는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의 아버지를 건강하게 해 주세요. 제발 빨리 우물 일을 마치실 수



않아요!

있게 해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는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아만다는 조지를 흔들며 깨우고는 손가락을 입에 대면서 쉬잇하였다.

엄마가 조용히 김이 나는 죽을 접시에 담으셨다. 숟가락을 내려 놓고는 담요 더미 위로 몸을 구부리셨다. 아버지가 여러 겹의 담요를 덮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숨을 거칠게 쉬고 계셨다. 아만다가 동생 지미에게 옷을 입히고는 얼굴을 씻겨 주었다. 아만다는 지미에게 죽과 숟가락을 주었다. 세 아이들이 소리없이 아침을 먹었다.

“아빠가 열이 높아서 오늘은 우물에 내려가지지 못 하겠다.” 엄마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엄마,” 아만다가 속삭였다. “아빠 말씀에

는 며칠만 더 일하시면 마차를 살 수 있다고 하셨는 데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하죠?”

엄마는 고개만 가로 저으셨다. 조지가 그의 두터운 외투를 집어 들면서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라고 말했다.

엄마는 놀라 쳐다보았다.

“나무를 조금 해 와야겠어요” 조지가 중얼거렸다.

소년은 통나무 집을 나와 놀란 토끼처럼 공기를 쿵쿵거리며 들이마셨다. 하늘에는 몇 조각의 흰 구름이 길게 꼬리를 그리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태양이 대기의 찬 정기를 맞아 갔다. 조지는 잠시 멈추어 서 있다가 바람 속으로 몸을 돌렸다. 재빨리 조셉 하커씨의 농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디 가는 거야?” 아만다가 숨을 할딱거리면서 뒤쫓아 왔다. 스커트가 바람에 필력거렸다. 그녀는 외투를 입고, 털목도리로 머리와 귀를 싸매고 있었다.

“넌 알거 없어.” 조금도 걸음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조지는 대답했다.

“나두 알아야 돼. 우물로 가는 거라면 말야?”

조지는 아만다 쪽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렇지! 우물로 가는 거지!” 아만다가 소리쳤다. “오빠가 어디 가는지 엄마가 아셔!”

오빠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아만다는 뛰어와야 했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로 양볼이 붉게 상기되었다.

“내가 말하면 엄마가 안 보내실거야.” 조지가 대답했다. “그렇게 되면 우물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마차를 살 수 없게 돼.”

아만다가 발을 멈추고 말했다. “오빠 혼자서는 우물을 팔 수 없어.”

“나도 할 수 있어!” 조지가 소리쳤다.

“혼자서는 못해! 누가 도와 줘야지.”

조지는 아무 말도 안했다. 아만다의 말이 옳았다. 12살 소년으로서는 키가 크고 다리도 긴 편이었으나 진흙을 우물 바닥에서부터 퍼 올리기에는 아직 키가 작았던 것이다.

“내가 도와 줄게!” 아만다가 조지를 앞질러 가면서 말했다.

조지는 누이 동생의 당당한 모습을 바라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다. 10세 소녀로서는 매우 체구가 당당하고 건강하다는 것은 조지도 인정하는 바였다. 더우기 우물가에 서서 우유통에 진흙을 담아 들어 올리는 일 정도는 해낼 수 있었다.

“그래 좋아.” 조지가 아만다 등 뒤에 대고 외쳤다. “집에 가서 우유통하고 가벼운 밧줄을 갖고 오련? 그동안 나는 우물을 파고 있을 테니까.”

아만다는 오빠 곁으로 와서는 팔을 그의 어깨에 돌리고 “난 오빠가 참 좋더라! 빨리 다녀 올께”라고 속삭였다.

조지는 풀 위로 날아가듯이 뛰어가는 아만다를 바라보다가 바람을 헤쳐 나아갔다. 외투의 깃을 올리고 손은 주머니 속으로 깊숙히 찔러 넣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쁘기 그지 없었다. 우물을 다 뚫다고 말할 때 엄마의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였다. 둘이서 할 수 있었다!

조지의 손은 뽕뽕 열었다. 집에 짚으로 만든 매트리스 밑에 병어리 장갑을 넣어 둔 것이 생각났다. 그러나 아만다에게 장갑을 가져 오라고 시키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집에 갈 수도 없었다. 엄마가 그에게 너무 작고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 겁이 났던 것이다.

“아무튼 우물을 파야 해.” 조지는 마음을 다부지게 먹으면서 응얼거렸다.

곧 조지는 작은 나무 숲으로 가려 있는 하커씨의 농장을 볼 수 있었다. 조지는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무거운 곡괭이와 삽이 하커씨의 가축 우리 벽 안에 기대어 있었다. 나무 손잡이는 차가웠으나 빨리 일을 하고 싶어하는 조지의 손에는 부드럽게 느껴졌다. 그는 곡괭이와 삽을 어깨에 메었다. 꽤 무거운데! 이 곡괭이는 머리 위로 쳐 들기조차도 어렵겠는걸 어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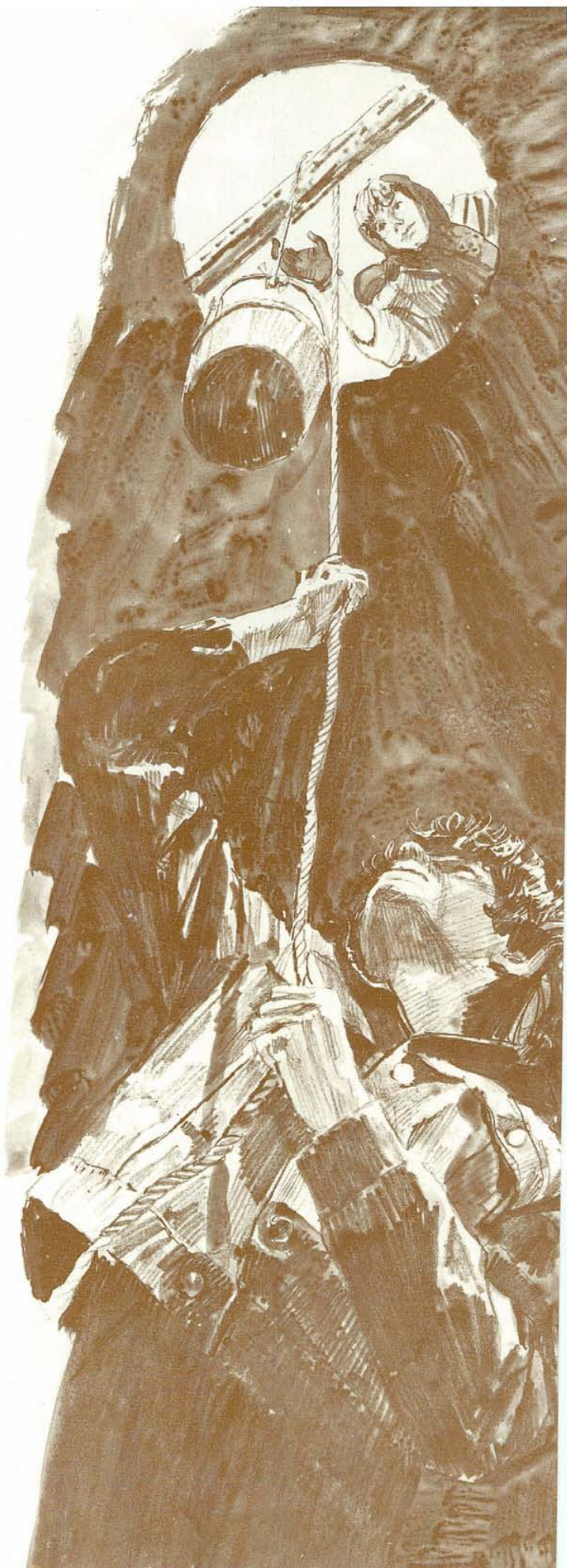
마치 사람의 음성처럼 그의 귀에 들리는 대답이 있었다. “내가 도와 주지”

잠시 조지는 놀랐다. 그리고는 우물로 가서 그가 해야 할 일을 파악하고 온 힘을 다 기울여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우물 꼭대기 근처의 단단한 지주에 묶어 놓은 밧줄을 타고 조지는 쉽게 우물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발이 바닥에 닿자 차가운 물이 그의 장화 위까지 튀겼다. 무거운 괭이 자루를 잡고 우물에 내려가기 전에 조지는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조금 후에 아만다가 우물 입구에서 몸을 구부렸다. “오빠, 우유통이랑 밧줄을 갖고 왔어.”라고 말하면서 아래로 내려 보내 주었다. 조지는 진흙을 통에 담기 시작했다. 그는 밧줄을 통의 손잡이에 매고 다른 한쪽 끝을 동생에게 던져 올려 보냈다. 젖은 진흙의 무게 때문에 안간 힘을 쓰는 동생을 올려다 보면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통이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자 첩병하면서 다시 떨어졌다.

“미안해 오빠!” 아만다의 얼굴은 용서를 구하는 모



습으로 일그러졌다.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조지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몹시 지쳐 있었고 눈물이 거의 날 지경이었기 때문에 몹시 성난 듯한 음성이었다.

아만다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이 보였다. “할 수 있어. 오빠. 내가 해야 해.”

조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만다는 열심히 해 보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통이 자꾸만 우물의 거친 벽에 걸리는 것이었다. 아만다의 양볼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가가 붉어졌다. “아만다, 오빠가 미안하다.” 조지는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는 조용하게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보자. 우리를 도와 주실꺼야.”

아만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위에서 땅에 무릎을 꿇었다. 조지는 선 채로 고개를 숙였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자 바람이 잦아졌으며, 근처 숲에서 우는 울새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었다.

갑자기 아만다가 벌떡 일어서더니, “생각났다.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면서 뛰어갔다.

조지는 아만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발가락과 손가락이 마비가 된 것 같았다. 등과 팔이 쭈시는 듯이 아팠지만 추위를 가시게 하기 위해서 다시 꼭깡이질을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질질 끌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더니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진흙 덩이와 눈이 그의 머리와 등에 떨어졌다. 햇빛을 가리는 그림자가 보였다. 나무 기둥이었다.

아만다가 아래를 내려다 보며 말했다. “단단한 나무 기둥을 찾았어. 양쪽에 돌로 받쳐 놓았으니까 구르지 않을꺼야. 다시 밧줄을 올려 줘 봐.”

조지는 아만다의 말대로 하였다. 나무 기둥을 임시 도르래로 하여, 조지는 혼자서 통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아만다는 통이 꼭대기까지 올라 오면 통속에 있는 진흙을 독에 쏟고 다시 통을 아래로 내려 주는 일을 하였다.

“된다!” 아만다가 외쳤다. 조지는 아만다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해가 중천에 올 때까지 오누이는 열심히 일하였다. 조지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무릎 아래로는 뽕뽕 얼어서 마비가 되었다. 밧줄이 미끌어져 내려 가면서 아만다의 손등을 베어도 아만다는 아픈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정오가 되자 조지는 천천히 밧줄을 타고 위로 올라와서는 얼음이 녹는 땅위에 털썩 몸을 던졌다. 아만다는 오빠 곁에 앉아서 그의 다리와 장화에 붙은 두터운 진흙을 떼어 냈다. 갑자기 아만다가 컷속 말로

소근댔다. “엄마가 오셔, 오빠!”

조지는 일어나 앉을 수도 없었다. 동쪽으로 고개를 돌려 보니 엄마가 동생 지미와 함께 점점 가까이 오고 계셨다. 엄마가 화내는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때마다 조지는 이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제 어머니가 화를 내실 것이 몹시 두려웠다. 우물 속으로 기어 내려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엄마는 천으로 싼 꾸러미를 내려 놓으시고는 조지와 아만다를 바라보며 서 계셨다.

“어디,” 엄마가 조용하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우물을 잘 봤나 볼까?”

조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엄마가 무릎을 꿇으시더니 조심스레 우물 안을 내려다 보셨다. “음, 돌이 나올 때까지 파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엄마는 조지와 아만다에게 고개를 돌리시고는 입가에 미소를 띄웠다. “참 잘 했구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잘 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랬구나.”

“그러면 엄마랑 아버지랑 모두 우리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걸 아셨어요?” 아만다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엄마의 깊고 푸른 눈이 반짝거렸다.

“조지가 나무를 해 오지 않자 알아차렸지.”

“나무는 해 갈게요. 약속해요. 엄마.”

“저녁때 집에 돌아가면서 나무를 모아 가져구나.”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조지의 어깨를 팔로 감쌌다.

“아만다야, 이제 보자기를 풀어서 축복 기도를 하자. 음식이 다 식었겠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우물 파기를 시작하기 전에 엄마가 다시 설명하셨다.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여기에 수질층이 있어서 진흙이 매우 미끄럽다고 하시더라. 돌로 진흙을 막으면서 우물을 파지 않으면 벽이 가라앉아서 사람이 다치거나 우물을 못쓰게 만들게 된대. 돌을 좀 가져다가 쌓으면서 해야겠다. 그래야 우물이 똑바로 파질거야.”

“엄마,” 조지가 힘있게 말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채석장을 알아요. 하커씨에게 마차를 빌려 달라고 해서 돌을 날라 오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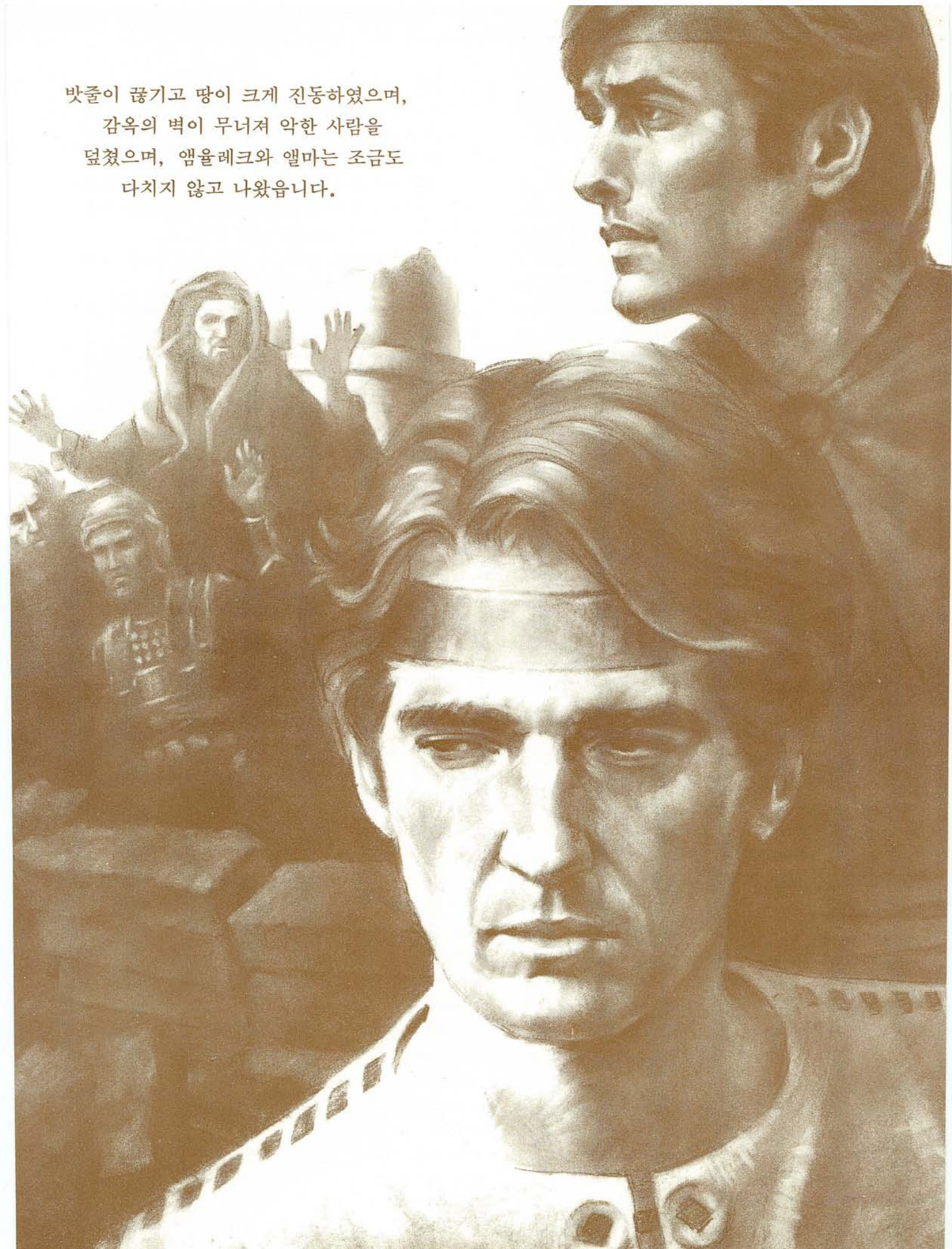
“아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만 해야 한다. 아빠는 몇 주 쉬셔야 해.” 엄마가 말씀하셨다. “무척 어려운 일일텐데.”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면 돼요.” 아만다가 말했다.

“그래요, 엄마.” 조지가 맞장구쳤다. “이 길 밖에 없지 않아요!”

*

빛줄이 끊기고 땅이 크게 진동하였으며,
감옥의 벽이 무너져 악한 사람을
덜쳤으며, 앰울레크와 엘마는 조금도
다치지 않고 나왔습니다.





엠울레크

메이블 존스 개뿔

엠울레크가 엠몬아이하 성 남단에 있는 그의 아름다운 집으로 급히 가고 있을 때, 피로에 지친 한 사람이 길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하나님의 종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겠소?”

“저의 집에 갑시다. 나는 니파이인이외다. 당신은 천사가 시현으로 내게 오리라고 한 바로 그 사람이군요.”라고 엠울레크는 말하였다.

식사를 마친 후,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교회의 대제사인 엘마요. 여러날 동안 나는 당신의 성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내게 침을 뱉고, 나를 성 밖으로 쫓아 내었소.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남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다오.”

엘마는 엠울레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엠울레크는 엘마와 함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나아갔습니다.

엠울레크는 엠몬아이하 성에서 상당히 명성이 높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 서서, 엘마가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천사가 시현으로 나타나셔서 이 예언자를 맞이하라고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간교한 율법사들이 그의 이야기를 반박하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 했습니다. 이같은 율법사들 중 한 사람인 지에즈롬은 엠울레크에게 돈을 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경고하도록 예언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부인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엠울레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군요.”

엠울레크가 모든 것을 알고 힘있게 말하자 지에즈롬은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눈이 어두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악하였습니다. 그들은 엠울레크와 엘마를 잡

아 강한 끈으로 결박하였습니다. 지에즈롬은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저들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엠몬아이하 성의 백성들은 지에즈롬에게 침을 뱉고는 성 밖으로 쫓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도 악하여 성스러운 경전이 담겨 있는 기록을 한 곳에 모아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엠울레크와 엘마를 그곳에 데려 와서 백성들에게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 보게 하였습니다.

불이 잦아지자 그 땅의 재판사는 엠울레크와 엘마 앞에 서서 그들의 뺨을 때리며 말하였습니다. “또 다시 전파하겠느냐?”

엠울레크와 엘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감옥에서 음식도 물도 먹지 못하였으며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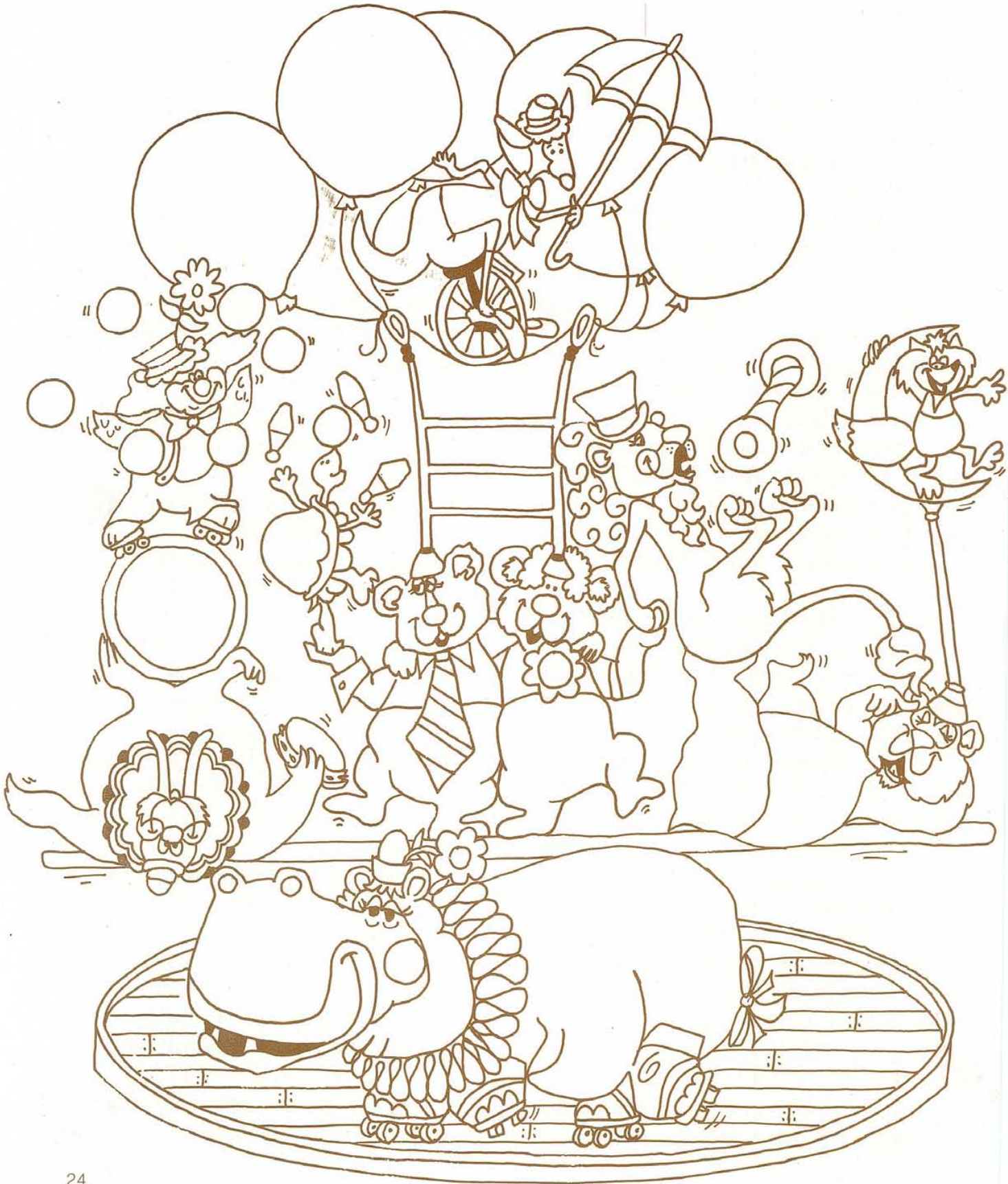
마침내 엠울레크와 엘마는 주님께 소리높여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의 믿음대로 저희에게 힘을 내리사 저희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끝나자 밧줄이 끊기고 땅이 크게 진동하였으며, 감옥의 벽이 무너져 악한 사람을 던졌으며, 엠울레크와 엘마는 조금도 다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암몬아이하를 떠났을 때, 그들은 지에즈롬이 몹시 앓고 있으며, 그들을 만나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에즈롬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엠울레크와 엘마는 그리스도를 믿는 지에즈롬의 신앙에 따라 그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지에즈롬은 곧 완쾌되어 병상에서 일어나 엘마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엠울레크는 엘마와 함께 제이라헤플라땅으로 가서 주님께 크게 봉사하였습니다. *

색칠하기



물론 일지

스페인어로 들리는 음성

루이스 에스피노자/글

나는 교회에 입교하기 전부터 일지를 써 왔으나, 일지가 나의 가족을 가르치고 용기를 부여해 주는 성스러운 도구로 사용되는 힘을 그토록 크게 실감하게 된 것은 1968년에 있었던 경험 때문이었다.

나는 6년 전에 칠레에서 입교한 후, 유타로 건너 가서 레리아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결혼하였다. 1968년에는 내가 학생이었고 나의 아들 루이스는 세 살이었다.

당시 우리 가정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목적에 있어서도 그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의견이 달랐다. 우리는 금식을 하고 기도했다. 영의 인도를 갈구하던 어느 날 아침 면도를 하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하여 꼼꼼히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바로 그 순간 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어디선가 스페인어로 말하는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다. 그 음성은 내게 분명하게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우리가 이해하여야 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시켜야 할 여러 가지 복음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려 주었다.

이와 같이 지시를 받은 나는 곧 이 새로운 빛을 나의 아내와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에 묻어 있는 비누 거품을 씻지도 않은 채, 나는 욕실에서 뛰어나왔다. “여보, 당신한테 말할 게 있어. 지금 당장 말이에요” 그날 아침에 받은 축복의 하나는 내가 아내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원리, 곧 가족과 관계되는 원리와 교회에서 받은 가정의 밤에 관한 권고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주었으며, 지금까지도 가정의 밤은 가족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고 있다.

나의 일지를 읽고 있는 지금, 그때의 느낌이 그대로 되살아 오르는 듯하다. 휴 비 브라운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때때로 혼자 있을 때, 나는 가식되지 않고 꾸밈이 없이 나의 영혼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내부에서 들리는 진리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다. 그리고는 내가 그것을 이 지상에 갖고 온 것이며, 누구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도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영원한 탐구, 북크래프트사, 1956년 435페이지)

나의 경우도 그와 같은 것이었다. 마치 진리의 음성이 내게 이야기하는 듯 하였다. 나는 마음의 평정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이 진실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일지를 읽을 때마다 다시 한 번 그것이 진실이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내가 영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영감이 온 것 자체가 나에게 영감이 아닐 수 없다. 분명히 영은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기도의 응답이 너무도 강하고 분명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말로써 언약을 하기에는 너무나 성스럽기 때문에 여러 달 동안 일지에 기록조차 하지 못하고 지나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나는 침례받기 직전에 겪었던 또 하나의 영적인 경험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에도 나는 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회상할 수가 없다. 나는 그 당시의 일을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지만 해 줄 수가 없었다.

나는 최근에 받은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도 침례와 같은 경우가 되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일지에 그 사건을 적기 시작하였다. 놀랍게도 여러 달이 흐르는 사이에 몇 가지에 대한 기억이 흐려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지에 옮겨 적는 것을 더 늦추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러나 이제 나의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기록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가족이 함께 이것을 여러 차례 읽었으며, 그것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11살된 아들은 벌써 5년째 일지를 써오고 있다. 인생의 첫 출발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함으로써, 그 아이의 과거는 현재의 힘이 되며, 내일의 지식이 될 것이다. *



시작이 어려우면...

애니타 밀러

나는 복음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운 견해를 갖고 있는 가정에서 자라 왔다. 우리 가정에는 신권 소유자인 사람도 없었으며, 나도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복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지 못한 형편이었다.

나의 남편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가정에는 복음의 빛이라곤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의견이 대립되고 오해만 커졌기 때문에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조차 않았다.

나는 이러한 개운치 못한 감정이 우리 가정에 감돌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5년 전 어느 날 나는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였다. 바로 그때 남편은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다. 아들의 나이가 4살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점차로 우리는 주일학교와 성찬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우리는 별로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 사람들도 모두 낯설었고, 아무도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한 가족이 우리를 그들의 가정의 밤에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다. 나는 그때, 우리 가정에 빠져 있는 무엇인가가 바로 그 가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휴가를 받아 온 남편에게 나는 교회가 나에게 주는 의미와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함께 교회에 나가 보자고 권하였다.

남편이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켄터키주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우리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다. 남편은 반에서 항상 이상한 질문만을 던지는 태도로 일관했다. 분반 공과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이나 경우에 하면 좋을 듯한 질문만 골라서 교사에게 묻는 것이었다. 나는 다음에는 말일성도가 모여 사는 곳으로 발령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남편이 물몬들과 어깨를 마주대면서 생활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는 다음 전근 발령지에 대하여 많은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다음 전근 발령지는 오클라호마주의 스틸워트였다. 나는 사흘을 두고 울었다. 오클라호마에는 물몬이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 오클라호마에서도 우리는 다시 구도자반에 참석하였다. 가정 복음 교사가 우리 가정을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커다란 변화는 1970년 추운 겨울 밤에 일어났다. 1970년은 교회에 충성하는 해로 삼았다. 부분적인 물몬이 아

나라 철저한 물몬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 월요일(그때에는 상호부조회를 월요일에 가졌었다.), 무섭게 추운 날씨에 나는 집을 나섰다. 남편은 한사코 말렸지만, “가야 해요. 지금 안가면 올해도 결국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교회에 도착하였을 때, 저르기 실망 되었다. 한 사람도 안 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곧 회창단이 도착했고, 결국 일곱 자매들이 모여 모임을 갖게 되었다.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들은 간증 모임을 가졌다.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자매들이 간증을 드렸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매가 없었다. 나는 교회에 관한 나의 감정을 남편에게 빨리 말해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는 상호부조회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후 6개월 동안 한 번도 모임에 빠진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과의 결론을 맺으면서 간증을 나눈 다음, 나는 어느 자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처음에 물몬경을 읽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니파이삼서부터 읽어 보세요.”

나한테도 어려움이 있지! 나는 읽어 보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거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니파이삼서를 펴고는 다 읽었다. 당시에 나와 남편은 학생이었다. 니파이삼서를 다 읽은 후에 나는 열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남편에게로 갔다.

나는 남편에게 책을 내 주면서 말했다. “이것 좀 읽어 보세요. 지금까지 읽어 본 책들 중에서 이것보다 아름답게 쓰여졌던 책이 아마 없을 거예요.”

남편은 “당신 이 밤중에 지금 농담하는 거요?”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다 보았다.

그러나 남편은 그것을 읽었다. 11장을 읽은 사람치고 감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가 이를 알아 듣고 눈을 들어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니, 보라 저들이 보매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시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저가 하강하시 무리 가운데 서실에, 온 무리의 눈이 저에게로 향하였으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고, 저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으니, 무리는 혹 천사가 저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하였느니라.

“이에 저가 손을 앞으로 내 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8-10절)

이 성구가 전환점이 되었다. 남편은 물몬경을 모두 완전히 통독하기 시작하였다. 나도 물몬경을 다 읽었다. 우리는 다른 교회 서적도 읽었다. 우리는 기도를 드렸으며 가정의 밤을 갖기 시작하였다. 6개월이 채 못되어 남편은 침례를 받았으며, 1년 후에 그는 아들을 침례주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꿈이 실현되었다. ‘올해(1972년) 우리는 신전에서 가족으로 인봉되었다.

우리 가정을 행복의 길로 인도한 경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옳은 일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행위에 대한 벌을 받기 싫다는 이유에서 옳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응보가 두려워서 옳은 일을 행한다면 그 기초는 매우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늘 옳은 일을 하도록 배워왔기 때

문에 옳은 일을 하고 싶다.” 이같은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신념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성숙한 단계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간증과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싶다.” 물론 모든 사람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이유가 영원을 통해 우리를 지탱해 주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도 매우 고상한 이유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확신이 없다면 이같은 순종도 맹목적인 순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로버트 엘 심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여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훌륭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동기에서 선행을 행하였든지 우리는 복음 지식과 이해의 기초에 세워진 자신의 개인적인 확신, 곧 우리를 비이기적인 봉사의 생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복음 원리대로 생활한다는 고귀한 생각으로 높이 승화된 신념으로 끊임없이 재무장하여야 합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서 1 : 39) 이 성구는 모든 창조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항상 하나님이 영원한 진보의 대열에 참여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구를 이해한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더욱 영화롭게 되고 더욱 승영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성공함에 따라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그분이 진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축됩니다. 의로운 면에서 성공할 때 우리는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완전한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기적인 관심이 전혀 배제된 완전한 동기입니다.

회개의 필요성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란 하나님의 면전에 있을 수 없는 속성을 극복하는데 있다고 배워 왔습니다. 나는 가끔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장해 온 생활 방식과 똑같은 환경에 거하고자 할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느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는 것은 항상 크나 큰 실망을 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찾는 하나님 아버지는 높은 곳에 계시며, 이곳에서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성스러운 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막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극복하여 이기는

일입니다. 위대한 회개의 원리가 없이는 아무도 승영이나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만사에는 상대가 있어야 하기로 결정되고, 모든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짐이나 나쁜 습관이나 그릇된 결정을 다시 고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이 수단을 회개라 하셨습니다. 이것에 동반되는 화평을 용서라 하셨습니다. 자만, 오만, 이기심은 모두 악마의 도구이며, 회개해야 할 중요한 장벽입니다.

$E=mc^2$ 이라고 간단하게 기술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와 같이, 모든 위대한 개념에는 간단한 일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회개의 간단한 공식은 교리와 성약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 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 (교성 58 : 43) “고백하고 버림” 이것은 모두 자만과 오만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나, 신앙과 사랑과 겸손과 용기의 테두리 안에서는 지극히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

감독 앞에 제기되는 많은 문제가 감독 혼자서 조용히 비밀리에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감독의 재판에 회부되는 예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용서에는 문제의 경중에 따라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감독은 모든 것이 협정했던 바와 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간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점차로 회원은 새로이 발견된 자유에서 안정을 찾게 되며, 문제를 뒤로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새로운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또 하나의 짐이 덜어졌으며, 승영에 이르는 길을 막는 또 하나의 장벽이 헐렸습니다. 새로운 마음의 평화가 고심하던 마음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위선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깨끗한 양심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범법의 경우라도,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

과정은 매우 부드럽고 자애롭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회 재판 체제는 공의롭습니다.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 재판은 교회 회원을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돕는다는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랑의 재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중에는 그의 자녀를 퇴보하게 하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진보를 돕기 위한 것이지 훼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으로, 파문당했다가 다시 물의 침례를 받고 새로운 길을 찾아 모든 축복을 회복받은 사람을 20명 가량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신앙의 반석 위에서 있습니다. 그들이 합당한 신권의 훈계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새로운 확신으로 일어설 수 있었겠는지 과연 의심스럽습니다.

교회 재판 체제

교회 재판 체제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므로써 여러분이 주님의 방법에 대하여 신뢰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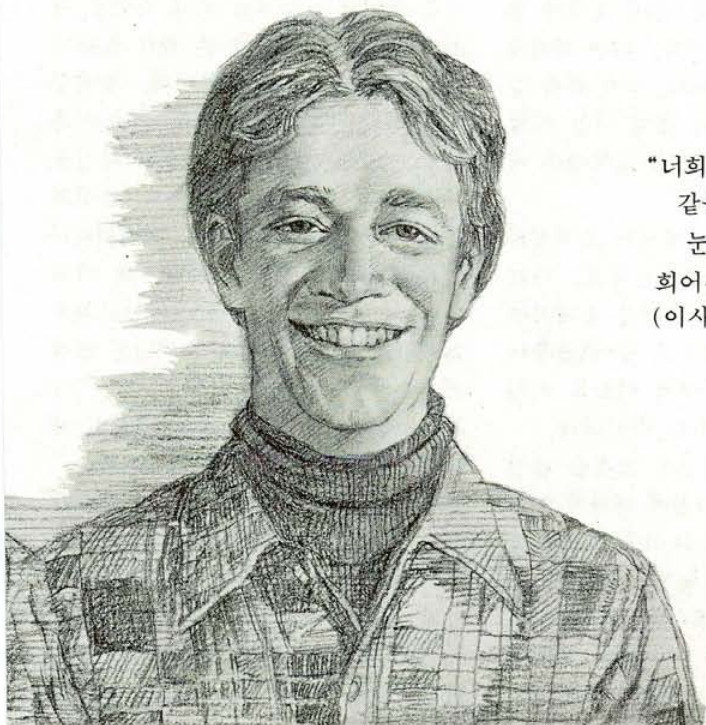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재판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마가 원하는 바입니다. 악마는 사람에게 옳은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것이 성공하였을 때 바로 악마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마의 목적을 위한 승리입니다. 불행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감독 재판이나 고등 평의회 재판을 응보를 위한 재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재판은 여러분이나 내가 염원하고 있는 높고 영원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제 감독 재판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독과의 개인 접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감독은 감독 재판을 소집할 것을 결정합니다. 재판정은 와드 감독단의 세 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를 제외한 와드 회원에 대한 파문 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를 포함한 와드 회원에 대한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이나 근신 처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고등 평의회 재판은 스테이크 부장의 지시를 받으며, 스테이크 부장단과 고등 평의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재판정은 스테이크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교회 회원을 심리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으며, 아론 신권 소유자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모두를 재판할 수 있고, 필요하면 파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재판은 금식과 기도를 드린 후에 소집됩니다. 공의와 주님의 계시된 말씀과의 융화가 교회 재판의 우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가벼우거나 너무 가혹한 판정은 주님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숙단하여서는 안됩니다. 사건의 진상을 들은 후에 개인의 정신을 판단하는 것이 공의로운 처사입니다. 공정한 심리와 영의 은사로써 행하여지는 최종 판결이 피고의 최고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범법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



“너희 죄가 주홍
갈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사야 1 : 18)

하고자 하는 범법자의 마음입니다. 심각한 범법을 행한 자가 와드나 스테이크의 신권 지도자에게 그 사실을 토로하기를 꺼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발각되는 것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킴블 대판장은 “강요당하지 않고 스스로 겸손하여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파문이라고 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심하게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권 지도자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운 생을 이룩하게 되고, 자신을 잘 준비하여 승영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심한 범법자까지도 주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울려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사 1:18) 이 얼마나 큰 약속이며 크나 큰 구속입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약속과 구속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만 오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파문 조처를 받는 경우

교회에서 파문 조처를 받게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죄를 범한 회원이 파문 대상자가 됩니다. 둘째, 복혼을 실시하거나 옹호하는 교회 회원이 파문 대상자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이러한 교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셋째, 교회의 교리를 배도하는 교회 회원이 파문 대상자입니다.

심각한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살인, 간음, 성적 도착, 기타 사회 윤리에 크게 위배되어 일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하는 범법 행위 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일반 법정에서 중죄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배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도자란 단순히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한 회원이나 비활동 회원이 아니라, 교회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신권의 권능을 부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 무관심하다거나 비활동이 되었다는 이유에서 파문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교회 회원으로서 그들의 근본되는 신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이 주님을 배반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두 마음 사이의 대립은 합리화를 빚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거짓된 안전을 찾도록 이끌게 됩니다. 태도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며, 그리하여 악마는 우리를 불행과 후회의 생으로 이끌게 됩니다.

언젠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감옥수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 감옥수는 감옥에 오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회개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알지 못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도둑질로 이곳에 오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어머니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나는 절대로 아무에게서도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위조범으로 들어 왔습니다.” 합리화란 사람에게 이토록 이상한 일을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개념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야고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즉 너희는 여호와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성임받은 변론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복하고자 한다면 그의 신권 지도자에게도 순복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나 그의 종의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나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자제의 필요성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승영과 영생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킴블 대판장님께서 그의 저서 용서가 낳는 기적에서 다음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인간의 성공은 그가 지닌 자제심으로 측정된다. 그의 실패의 정도는 자포자기로 알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말에는 다른 어떤 변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법칙은 영원한 정의를 나타낸 것이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어하지 못한다.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다.[작자 미상]”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 각 사람이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에 따라 각인을 다스리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제심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제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지배력이나 권세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 지체합니까! 뒤로 미루는 태도는 합리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크 트웨인은 빈정거리는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담배를 끊을 줄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구요? 수천 번도 더 끊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나 있습니까? “그런 습관은 즉시 그만 둘 수 있어. 때가 되면, 습관을 버려야지.” 시간과 공간에 요술 장막을 쳐 놓고는 그 요술 장막을 뚫고 가면 자신의 나쁜 습관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한낱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짓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악마의 가르침입니다. “불러야 할 노래를 부르지 못한 채 악기의 현만을 조이거나 풀으며 생을 마쳤노라.”라고 한 타골의 시가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행하도록 예미해 주신 일을 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쏟으며 세월을 흘려 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함

비이기적인 동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인생의 오점을 고치는 일이 중요하고 만족스러운 일인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오점을 고치도록 힘을 줄 수 있을 때가 참으로 만족스러운 때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마 5:43); “내 양을 먹이라”(요 21:16);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누가는 구세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1-32)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지상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만족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 사회 사업 프로그램의 관리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을 때, 수천 수만의 봉사자들이 남몰래 알코홀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를 돕고, 미혼모에게 새로운 생활을 개척하도록 힘써 주며, 감옥수로 하여금 재생의 길을 찾아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하라
(눅 22:31~32)

우리의 책임도 다룰 바가 없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은 시몬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 자신을 순복하게 되면 우리의 회개는 배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승리는 물론, 우리가 강해진 후에 강하게 만든 사람들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여야 할 가장 최상의 목표로써 적극적이고 비이기적인 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승영에 이룸

청소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원리를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파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징계 조치일 뿐이요, 미래의 가능성을 보다 밝게 만들어 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의 사업, 그의 영광은 승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더욱 기쁜 일은 하나님께서는 점수에 차이를 두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A학점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불행과 파

괴를 피하는 사탄의 계획에 말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와 함께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청결화 과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청결화 과정에 맞추셔서 그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성신이 여러분의 변치않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여러분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성 121:45-46 참조)

바로 이것이 이 교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권 역원은 모두 선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며, 이들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여러분과 내가 올바르게 지시와 인도를 받아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신권의 권능으로써 가족 단위로 영원한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을 압니다. *



사랑이란
이해하고 돕는 것

데오 이 맥킨

가쁜 숨을 힘들게 내쉬면서 조용히 누워 있는 어린 아들을 지켜 보면서, 의사와 가족이 모두 밤을 새우던 어느 날 밤이었다. 지루하게 길었던 시간이었으나 보람은 있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한 인간의 전문적인 지식의 덕으로 귀한 아들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인간의 일면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아내가 침묵을 깨고 이렇게 물었다. “박사님, 박사님께서는 저의 가족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왜 그 대가를 전혀 청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의사는 잠시 동안 묵묵히 그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였다. 얽은 애수의 빛이 그의 얼굴에 감돌더니 이윽고 의사는 입을 열었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독일에서 이민을 오셨습니다. 당시의 생활이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죽도록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디프테리아가 돌았을 때 나의 누이 동생과 내가 함께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부모님께 약이 없어 한 사람밖에 치료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결정을 내려야 하게 되었지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내게 약물 치료를 해주기로 결정이 내려졌고, 그래서 나는 살았지만, 내 누이 동생은 며칠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누이 동생을 조그마한 관에 넣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가 격리당해 있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은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집에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창문을 통하여 구경만 하였지요.

“나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작은 관에 누워 있는 어린 동생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치켜 올려 주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밖으로 나가시더니 마차에 올라 타시고 관을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 놓고는 혼자서 마차를 몰아 근처 묘지로 가셨지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내가 개업을 했을 때 내 간호원이 환자들에게 청구할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구서를 보면서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완쾌된 후에 나의 부모님이 감자와 다른 곡류로 치료비를 갚느라 오랫동안 애쓰시던 것이 생각났지요. 전에도 곧잘 나 자신에게 묻곤하던 질문을 다시 묻게 되었어요. “왜 누이 동생 대신에 나를 살리셨을까?”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나는 청구서 더미를 휴지통에 쓸어 버리고는 간호원에게 치료비를 지불하고 싶은 분은 지불해도 좋으나 전처럼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의사가 말을 마치자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자기 자신보다 봉사를 먼저 생각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도 얼마나 흐뭇한 일인가!

구세주께서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실 때에도 자신을 봉사하고 희생하셨다. 우리는 그날 밤 구세주와 같은 봉사를 행한 분과 함께 있었다. 우리는 육체적인 면에서 병고침을 받았다. 또한 이 훌륭한 교사이 친구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사랑과 이해와 교훈과 용기를 받았다.

반원을 이해해야 함

의사가 약품의 효능을 알고 환자의 필요 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는 복음을 알고 반원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시리즈의 첫편에 나와 있는 도표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참조”, 1977년 4월호 28페이지)

반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교사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교사란 진실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은 반원의 필요 사항이 무엇이든, 각 반원에 대한 거짓없는 사랑과 이해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랑의 특성

반에서, 가정에서, 혹은 다른 어느 곳에서든지, 반원과 교사와의 관계는 다음 성구에서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특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즉시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후에는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저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저로 네 성실함이 죽음의 사슬보다 더 강할 줄 알게 하라.”(교리와 성약 121:41-44)

위의 권고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태도와 특성을 우리 자신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반원에 대한 사랑의 도를 가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랑의 힘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 귀중한 성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로 하여금 배우고 발전하고 무엇인가를 달성하도록 영향을 주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관찰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영향력보다도 거짓없는 사랑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회초리나 역정으로 다스릴 수 없는 어린 아이도 거짓없는 사랑과 동정심으로는 즉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원칙은 인생의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대회보고, 1902년 10월, 92페이지)

같은 대회에서 주일학교 본부 임원인 헨리 피터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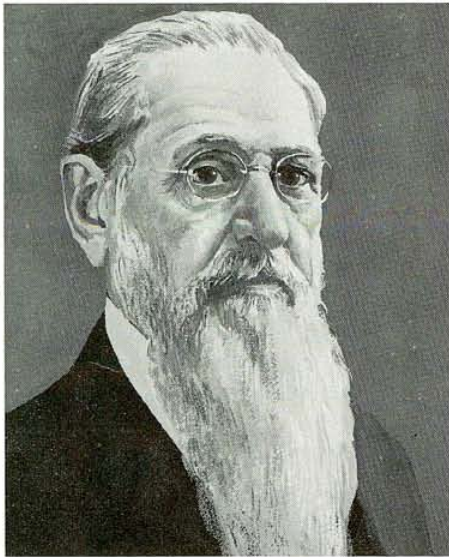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모든 교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을 가리켜 반원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자질을 갖춘 교사는 그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필요한 다른 모든 자질도 아울러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가 보호하는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교사는 반원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반원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주기 위하여 자신을 준비합니다.

“반원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있는 교사는 반원을 영적인 생활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해 복음

을 사랑하기를 배웁니다. 그러한 사람은 경전을 상고하기를 즐겨하고, 다른 사람도 같은 즐거움을 맛보도록 인도합니다. 반원이 정기적으로 반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반원을 사랑하는 교사는 반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교사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은 그들로 하여금 필요한 준비를 갖추도록 고무시켜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도구로 삼으셔서, 자연스럽게 건전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원과 연결되지 않은 종교적, 역사적 사건을 기계적으로 주입시키지 않고, 영적인 생활의 일용할 양식을 주게 될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02년 10월, 94페이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영향력보다도
거짓없는 사랑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회초리나 역정으로
다스릴 수 없는 어린아이도
거짓없는 사랑과
동정심으로는
즉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자신을 이해함

교사는 어떻게 사랑과 이해심을 개발시킬 수 있겠는가?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그의 저서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반원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두 배워야 한다.”(85페이지)

사랑을 발전시킴

물론경에서 이노스는 온 인류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건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 이노스는 가슴속 깊이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 “내가 영으로 굶주림을 느껴”(4절)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굶주림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에 대한 크나 큰 염려로 무릎을 꿇게 하였다.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울부짖어 구하며 내 영육을 위해 심령을 다하여 간구하였고, 밤이 되도록 소리를 높여 하늘에까지 소리가 들리도록 부르짖었더니”(4절)

주님께서는 이노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제 가라 너의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8절)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이노스의 태도와 느낌은 현저하게 달라졌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동료 니파이인들의 변명을 비는 마음이 솟아나, 하나님께 나의 온 심령을 기울여 저들을 위해 간구하였더라.”(9절)

또 다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며, 이노스의 사랑과 염려는 전보다 더욱 커졌다.

“나 이노스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주를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나의 형제인 레이맨인들을 위하여 오랜동안 힘써 주께 간구하였더니.(11절)

이노스의 점진적인 영적인 성장은 급기야 적에게까지 사랑과 관심을 쏟기에 이르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기도하여 구하고 나자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네 신앙이 지극하매 이제 내가 너의 원대로 네게 이루리라 하시니”(12절)

참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훌륭한 모범이 아닌가!

이제 우리도 온전하게 될 때까지 부지런히 노력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모로 7 : 48) 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반원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며, 반원도 의에 굶주림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이 계속하면, 다루기 어렵고 반항적인 반원에게까지도 사랑과 이해와 가식이 없는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한 반원도 역시 주린 자요, 목마른 자요, 나그네요, 헐벗은 자며, 병든 자요, 옥에 갇힌 자이다. (마 25 : 35, 36) 그들은 우리의 이해와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 : 40)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15 : 12)

*



반원을 이해함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세상의 많은 교회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가르친다. 인간은 세속적이고 육욕적이며, 죄를 안고 태어나 악해지기 쉬운 성품을 갖고 있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교리는 인간의 썩고 악한 성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로는 은총의 힘을 입어 인간은 악하고 비천한 상태에서부터 올림을 받게 된다는 낙관적인 소망을 이 교리는 주장하고 있다. 이 교리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고자 하는 성품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릇된 교리이다. 나는 이것을 참되다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함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가 그의 가족이라면 선한 성품을 타고 났음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이다.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파괴적이고 악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본성과는 다른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 각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되새겨야 한다.

나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관해 이야기해 주는 성경 구절을 알고 있다. 나는 인간의 비행을 묘사한 성구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러한 개념은 성구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아버지를 의미한다는 메시지로서 균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여러 해 전 나는 내가 교사가 된다면 인간의 성선설을 인생 철학의 기본으로 삼아 가르치겠다고 다짐한 때가 있었다. 그와 같이 결정을 내린 날, 만사는 급전하였다. 그 시각부터 항상 소망이 깃들었다. 무례하고 난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딘가에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을 신뢰하겠다

몇 년 전,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였다. 여러 가지 이

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모든 사람을 의심한다는 사실이였다. 사람을 만나면 나는 머리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우선적으로 가졌다.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도대체 뭘 하려고 이러는가?” 내가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이용당했던 경험이 있는 후로 이러한 태도가 자라게 된 것이다. 냉소적인 태도가 나의 내부에서 자라고 있었다. 나는 나의 태도를 바꾸어 모든 사람을 신뢰하기로 결심하였다. 그후로 나는 이러한 법칙을 따르고자 노력하였다. 신뢰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같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 그렇게 보는 나의 책임은 아닌 것이다.

특상품

우리 자녀는 물론 반원들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성장한다. 내가 교사였을 때, 나는 항상 첫날에 반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다. 선교 지역에 도착한 새로운 선교사 그룹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밖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들려 주고자 노력하였다. 그 메시지는 확신의 메시지이다. 메시지의 내용은 대강 이러하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성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만큼 성장하고, 원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며, 어디서 자랐으며,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현재의 여러분을 받아서 “특상품”이라는 인지를 붙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상품이라는 이름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좋지 않은 점이 있으면 지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영적으로나 혹은 다른 면에서 침체했던 일이 있으면, 바로 지금부터 그것을 던지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일어서고자 하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 선교사, 그밖에 나와 함께 교류를 갖는 사람이나 내가 감리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나는 이러한 신뢰와 확신의 기초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태도를 바꾼 후부터 나는 훨씬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물론 실망한 적도 여러 번 되고, 이용당한 적도 여러 차례가 되지만, 그러한 것에는 개의치 않았다. 내가 누구인데 꼭 이용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 있는가? 그것이 모든 사람을 신뢰한 대가라면 나는 달게 지불하겠다.

악이용당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은 전보다 훨씬 적어졌다. 악이용당하거나 신뢰와 확신이 배반당할 때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고통일 뿐이며, 마음이 아픈 고통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마음 아픈 고통이란 부지불식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악이용한 자질을 발견하게 될 때이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그것을 피하여야 한다…… (제12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72-78페이지)

자녀에게 도덕적인 가치 기준과 영적인 가치 기준을 가르칠 때, 우리는 그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충분히 발달하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교사는 겉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속까지도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부모를 위시하여 교사는 그들이 가르치는 반원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침을 갖고 있다. 때때로 이러한 지침이 과장되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전세의 상태에서 왔으며, 많은 부분을 기억할 수는 없으나 상당히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의 다음 말씀은 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청소년이라 해서 아직 미숙한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정상적인 성인의 성숙한 영적 상태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문을 통하여 들어온 자녀로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보지 못하고, 기도의 효능을 보지 못하고, 병 고치는 신앙의 권세를 보지 못하며, 세상이 모두 목말라 하는 영의 단비를 맛보지 못한 청소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경험을 맛본 청소년의 뒤에 살면서 다가가서 꼭꼭말로 종교를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똑바로 정면으로 다가가서 청소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종교적인 진리를 세상적인 옷으로 가장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를 자연스럽게 공공연히 청소년에게 보이십시오. 오히려 청소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아이를 잠재우기 위한 이야기거리로, 또는 우는 아이를 달래는 이야기거리로, 또는 영적인 경험을 전혀 하지 않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교육에 대한 교회의 계획)

자녀는 이미 알고 있다.

종종 우리는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의 영적인 성숙도를 인정하지 않는 때가 있다. 그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 누구로부터 배우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로 인하여 가축과 새를 기를 수 있는 시골에서 생활하였다. 미룰 수 없는 일상의 일과 중의 하나가 가축과 새를 돌보는 일이었다.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은 일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을 배웠다.

언젠가 암탉이 동우리를 곳간 구유 밑에 감춘 적이 있었다. 이 동우리를 막내 딸 아이가 찾아 내었다. 병아리가 부화하면서 조그마한 병아리들이 빠끔히 보이기 시작했다. 딸 아이는 병아리를 만져보고 싶어했다. 그러나 병아리를 보호하려는 암탉의 완강한 저지로 만져볼 수가 없었다. 저녁 때가 되어 집에 돌아온 나를 보고는 딸 아이가 내 차로 달려오더니 자기의 위대한 발견에 대하여 열심히 말하면서 아기 병아리를 만져보게 해 달라고 조르는 것이었다. 암탉을 진정시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나는 병아리 몇 마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검정색, 흰색, 줄박이, 점박이 병아리가 있었다. 아이들은 병아리 주위에 모여 환호성을 지르면서 귀여워 하였다. 나는 막내 딸 아이에게 한 마리를 만져보게 해 주었다.

“이 병아리가 크면 집 지키는 개가 될거야.” 내가 말했다. 딸 아이는 코를 킁킁거리면서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 보았다.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급히 말을 바꾸었다. “아참, 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 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는 “이게 자라면 멋있는 말이 될 거야. 그렇지?”라고 말했다. 딸 아이는 아빠가 어찌면 그렇게도 모를까 하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병아리가 자라면 개나, 말이나, 코끼리나, 칠면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미와 같이 수탉이나 암탉이 된다는 것을 왜 아빠는 알지 못할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4살된 아이가 그러한 것을 알았을까? 우리는 한 번도 딸 아이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딸 아이는 어린 아이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듯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어린 아이들은 배우지 않고도 인생의 기본적인 교습스러운 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을 통하여 온전하게 진보해 가면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는 쉬운 일이

다. 우리도 부모의 패턴을 따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그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나는 어린 아이들이 꿈을 안다는 사실에 항상 흥미를 갖고 있다. 꿈이란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 줄 수 없는 것이며, 꿈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기도 무척 어렵다. 그러나 할 필요는 없다. 어린 아이들은 이미 꿈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이해하여야 할 중요한 성구가 있다. “인간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고”(니이 2:5)

부모와 교사는 자녀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때로는 이러한 지식이 불행한 인생의 경험으로 인하여 왜곡되거나 가려질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인 은사로써 이같은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식이 주어졌다.

이같은 지식 역시 나에게 큰 소망을 가져다 준다. 아무리 불쌍스럽게 보이고 타락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그 내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빛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각이 숨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자신을 알자

반원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두 배워야 한다. 자신의 반응, 느낌, 감지력 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될 때 여러분의 반원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가슴으로 가서 심장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물어 보라.”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마음에 질문함으로써 우리는 반원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우리 자신을 알므로써 상대방을 알게 되는 것이다.

브리감 영 대관장의 설교집에는 이 주제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실려 있다.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 때, 이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다루는 법을 정확하게 알 때, 이웃과 지내는 방법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배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을 쌓아서 자신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것을 보다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다소잔이라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배울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발췌 편찬, 데저렛 서적사, 1946년도판, 269페이지)

반원을 알자

하루를 택하여 반원에게 어떤 양식을 작성하게 하거나, 어떤 주제에 관한 논문을 읽거나 쓰게 하고는 반원 앞에 서서 잠시 동안 각 사람에 대하여 자세히 관찰해 보라. 좋은 교사는 이미 공과를 연구했을 것이며 더 훌륭한 교사는 반원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연구했을 것이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첫째, 반원을 바라보면서 왜 그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그들의 표정을 주의깊게 관찰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헌신적인 교사가 자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기독교적인 사랑이 뿌듯하게 스며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영감이요 사랑인 것이다. 이같은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사업, 곧 그의 양을 ‘먹이는’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 (제13장, “교사의 반원 연구에 관하여” 80-86 페이지) *

